

5월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8476.15	↓ 코스닥	1074.80
	(+290.86)		(-29.56)
↓ 금리 (미국 3년)	3.731	↑ 환율 (원/달러)	1504.80
	(-0.035)		(+2.00)

metro® 경제



내란 청산·민생 온기... 'K-브랜드' 확립

이재명정부 1년

확 바뀐 대한민국
 '3대 특검' 1호 법안 의결 비상계엄 가담자들 '단죄' AI산업 3대 강국 도약 위해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



이재명 정부가 오는 4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첫발을 내딛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국정은 반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

하지만 이렇게 위태롭게 출발했음에도,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외교·문화 등 전(全) 분야에서 내란을 청산하며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를 확립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 나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4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성격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했다

다. 이는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6월10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내란 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뒤에서 수사를 괴렸던 건검희씨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다.

또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약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민생경제에 급히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지난해 7월에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내란·탄핵 국민 6개월 간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은 내수 심리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동시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왜곡된 자본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

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에너지 대전환 등 비전을 앞세워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AI 산업을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을 2030년까지 공급받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이런 정책 효과와 세계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했다.

<4면에 계속> (사본 기사 syj@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co.kr



"올리브영 美 1호점, '글로벌 진출' 위대한 시작"

이재현 CJ그룹회장
 美 LA 패서디나점 찾아 상품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 수출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올리브영 미국 1호점(캘리포니아)을 방문해 북미 현장 경영을 하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국 내 주요 사업 거점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현장경영은 개별 사업장의 성과 점검을 넘어 식품, 콘텐츠, 뷰티 등 그룹의 핵심 사업 체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북미 시장 내 'K라이프스타일'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회장은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최초의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인 로스앤젤레스(LA) 패서디나점을 찾아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진과 북미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이회장은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은 단순히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에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이라며 "K뷰티와 K웰니스를 넘어 미국 고객들의 일상 속에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경영에는 김홍기 CJ 주식회사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 그룹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대거 동행했다.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은 국내 매장의 표준 포맷을 기반으로 하

되, 한국식 스낵케어 루틴과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높은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특히 전채 400개 브랜드, 5000여종의 상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지 올리브영 MD 팀장은 "이번 미국 오프라인 매장은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K뷰티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소비자와 만나는 전략적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장을 방문한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존 서양 뷰티 매장은 상품 구성이 다소 획일적이었으나, 이곳은 익숙한 브랜드부터 새롭고 신선한 브랜드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현지 매장의 고유한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어 인상적이다" 등의 반응

이 이어졌다.

CJ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 핵심 상권을 구축한 뒤 동부와 중남부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비고·뚜레쥬르·KCON 등 그룹 내 식품·엔터테인먼트 인프라와 시너지를 극대화해 '콘텐츠 소비'→K컬처 호감도 상승→K푸드·K뷰티 구매'로 이어지는 'K라이프스타일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식품미주법인을 7년 만에 찾았다. 지난 2019년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 인수 이후 그룹에 편입된 현지 임직원들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K푸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



한은·美 연준 '금리 인상' 무게추

韓 GDP전망 2.6%로 상향 등 '금리 인상' 명분 강화 요인



단된다"고 밝혔다. ◆ 인상 신호 '선명' 한은의 변화는 경제전망에

중동발 물가 충격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경로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향후 인상 가능성을 공시화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더 확산될 경우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 내리느냐'에서 '인상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문에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표현을 넣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사진)도 기자회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

서 드러난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렸다.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증시 호황이 이를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물가 전망도 크게 올라갔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상향했다. <3면에 계속>



메트로 한줄뉴스



- ▲ 선거 마지막 주말... "李대통령에 힘 실어아" vs "李 폭주 투표로 멈춰야"
- ▲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노출에 野 "선거 개입"

- ▲ 정원오 "헌 시장 바뀌달라...尹 폭정때 아무말 못해"
- ▲ 오세훈 "시민 권익 수호자 필요...5대 명령 관철할 것"

- ▲ 정부, 녹색소비주간 전국 개최...6월 30일까지
- ▲ 농촌진흥청, 폭염중대경보 신설...발령 시 야외 농작업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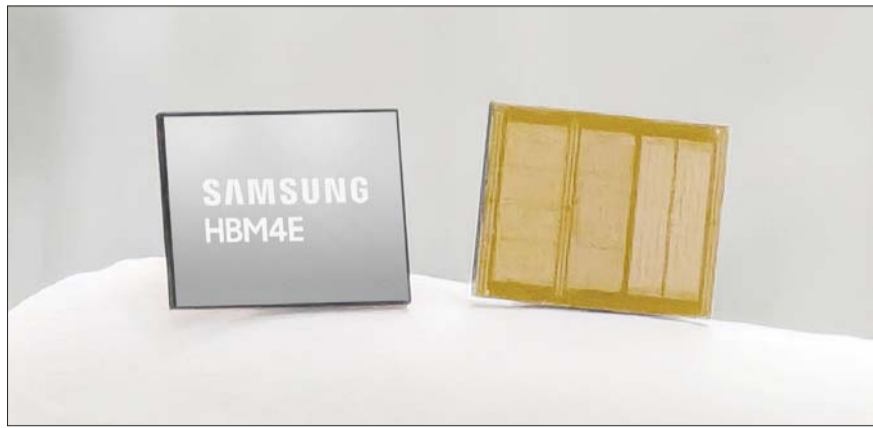
K-반도체, HBM 발열 잡는다... '저전력·냉각구조' 해법 제시

삼성 저전력 설계·패키징 최적화 에너지 효율 높이고 열저항 개선

SK HBM 내부에 냉각요소 적용 열저항 기준 대비 30% 이상 낮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최대 난제인 '발열'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놴. SK하이닉스는 냉각 구조를 패키지 내부에 직접 넣어 열을 빼내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설계로 열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HBM 시장 선두와 추격자 간 경쟁이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카드를 꺼낸 쪽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26일 HBM 패키지 내부에 일체형 냉각 요소(ICE·Integrated Cooling Elements)를 넣어 발열을 낮춘 'iHBM' 기술을 공개했다. ICE는 전기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하한 HBM4E 12단 제품. /삼성전자

통하지 않지만 열 전도율이 높은 실리콘 소재 구조물로, 발열이 집중되는 HBM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연결 구간인 D2D PHY(Die-to-Die Physical Layer)에 자리한다. 기존 HBM이 발열원에서 메모리층인 코어다이(CoreDie)를 거쳐 열을 내보내는 간접 방식이었다면, iHBM은 열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에 냉각 요소를

직접 넣어 전용 배출 경로를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이 방식으로 열저항을 기존 대비 30%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세계 최초로 7세대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했다. 앞서 3월 미국 새너제이 'GTC 2026'에서 선보인 제품을 실물로 내놓은 것이다. HBM4E 12단은 데이터가 드나

드는 통로(핀) 하나당 전송 속도가 전자 대비 20% 이상 빨라졌다. 통로 수천 개를 합쳐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테라바이트(TB)의 대역폭을 내며, 용량은 48기가바이트(GB)에 이른다.

발열 대응에서 삼성은 다른 길을 택했다. 냉각 구조물을 더하는 대신 전력 소모 자체를 줄여 열 발생량을 낮추는 접근이다. 저전력 설계와 패키징 구조 최적화로 전자 대비 에너지 효율을 16% 높이고 열저항 특성을 14% 이상 개선했다. SK가 열을 효율적으로 빼내는 데 무게를 뒀다면 삼성은 열을 덜 만드는 쪽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열을 빼는' SK와 '열을 줄이는' 삼성 가운데 어느 해법이 시장의 선택을 받느냐가 차세대 HBM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1면 '올리브영 美 1호점...'서 계속

“식품시장 1위 기업 도약”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CJ는 식품뷰티스타일편의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기업”인 만큼, 원팀(One Team)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초·최고·차별화를 지향하는 ‘온리원(ONLYONE)’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확고한 1위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더 CJ그룹을 시작으로 미네소타, 캘리포니아로 이어진 이번 북미 현장경영은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회장은 CJ푸드빌, CJENM, CJ대한통운의 북미 사업 확대방안도 직접 점검했다. 특히 미국 내 웰니스(Wellness) 트렌드 확산으로 프리미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푸레쥬르 등 K배아카리와 외식 사업의 영토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J그룹이 이처럼 북미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이 글로벌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K콘텐츠의 흥행이 K뷰티·K푸드 등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소비로 전이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과 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각각 22억 달러, 1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국이 K라이프스타일의 최대 전략 시장임을 입증했다.

이 회장은 다음 달 초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SCREENX, 4DX 등 미래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현지 미디어·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글로벌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북미 시장은 그룹의 글로벌 영토 확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며 “현지 고객 접점을 다변화하고 식품·뷰티·콘텐츠를 아우르는 융합 시너지를 강화해 글로벌 일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전자, 글로벌 TV시장 왕좌 수성... 中 TCL '바짝'

삼성,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 성장 플랫폼·콘텐츠 생태계 등 경쟁 격화

글로벌 TV 시장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을 기반으로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TCL은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추격에 나서면서 업계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글로벌 TV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6.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TV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켜낸 것이다. 다만 중국 TCL이 같은 기간 점유율을 전년 동기 12%에서 14.1%로 끌어올리며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했다. 특히 올해 1분기 TCL은 전 세

품군에서 TV 출하량이 증가한 가운데 미니 LED TV 판매 확대가 전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군인 OLED TV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OLED 시장 규모가 LCD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전체 출하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TCL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올해 글로벌 TV 시장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사이니지와 프리미엄 TV를 앞세워 글로벌 고급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자발광 기술을 적용한 2026년형 프리미엄 TV 신제품 '마이크로 RGB TV(R95H)'가 미국과 영국 주요 IT 전문매체들로부터

터 잇따라 최고 평점과 만점을 받으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RGB TV는 기존 LCD TV의 백색 백라이트 방식에서 벗어나 적색(R)·녹색(G)·청색(B)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각각의 RGB LED를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어 색 재현력과 명암 표현력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100마이크로미터(μm) 이하 크기의 초소형 RGB LED 칩을 적용한 마이크로 RGB 기술'을 통해 화면의 색상과 밝기를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색 표현과 향상된 화질을 구현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RGB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통해 기술 리더십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TCL은 초슬림

디자인과 미니 LED 기술을 앞세워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TCL은 최근 두께 39.9mm의 울트라슬림 TV 'A400M'을 국내에 선보이며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양사의 경쟁은 TV 제품 성능을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생태계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구글 출신 이원진 사장으로 교체했다. 이 사장은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FAST)인 '삼성 TV 플러스'를 안착시킨 플랫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TV 제조 경쟁을 넘어 스마트 TV 운영체제(OS)와 콘텐츠 서비스를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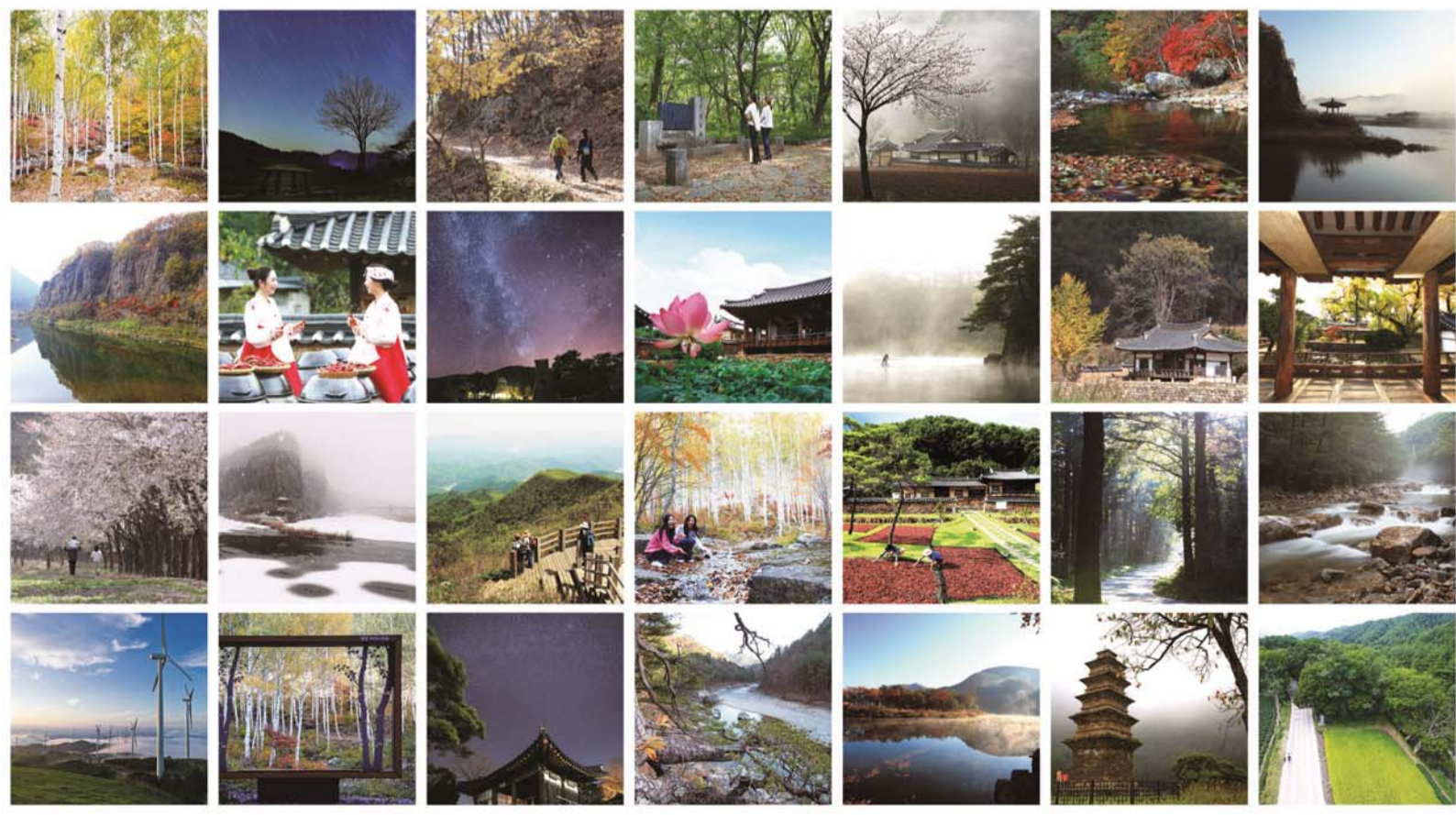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카드론까지 내몰린 사장님들

1 1093조 부채 경고등

빛을 갇기 어려운 시대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회복이 더디다. 빛이 늘면서 신용점수는 떨어지고, 일상생활까지 제약이 커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개인까지 빛에 허덕이고 있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 걱정이다. 빛 갇기 어려운 사회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서울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체 안내 문자를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버티기 위해 받은 정책대출과 최근 식자재 가격, 임대료 부담 등이 더해지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존 사업자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카드론으로 원리금을 막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만만찮다"며 "연체만은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버텨는데, 이젠 답이 안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만기연장과 대환대출로 연체를 미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전체 대출 증가율은(0.8%)은 전년

(1.0%)보다 낮아졌지만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4000만원(사업자대출 2억3000만원, 가계대출 1억1000만원)으로 증가율은 1년새 2.9%(1000만원)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커졌지만 매출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서도 최근 폐업 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업종도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통해 버텨온 영세사업자들은 매출 회복 없이 원리금 상환만 늘어 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생활물가는 2.9% 올랐다. 외식과 식료품 등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Fed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2%를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로이터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이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 장기화와 물가 확산 가능성이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지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보던 시장 분위기는 약해졌고, 물가가 다시 흔들릴 경우 다음 선택지가 인하나 아닌 긴축 쪽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경계감은 커졌다.

이 흐름은 국내에도 직접적인 변수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 어두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좁히는 구조로 이어진다.

성장·물가 전망 상향에 인하 명분 약화

>> 1면 '한은·美 연준...'서 계속

성장률 상향은 경기 방어를 위한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고, 물가 전망 상향은 인상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금통위 내부 기류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도 직전 회의보다 뚜렷하게 상향했다. 지난 2월 전망에서는 21개 점 가운데 2.50%에 16개, 2.25%에 4개, 2.75%에 1개가 찍혔지만, 이번 5월 전망에서는 3.00%에 10개, 2.75%에 7개, 3.25%에 2개, 2.50%에 2개가 분포했다. 금리 전망의 중심이 현 수준 또는 인하 가능성에서 인상 경로로 이동한 셈이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 문제를 "언제 올리는냐, 얼마나 빨리 올리는냐, 어디까지 올리는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두고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도 인하보다 인상 리스크

미국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4월 연방공개

/김주형 기자 gh471@

“

고금리·내수부진에 상환능력 약화 만기연장·대환대출에도 한계 상황 은행권 막히자 카드론 의존 확대 1인당 평균 대출 3억4000만원 카드론 42조9941억 부실 우려 연체·폐업 늘어 취약차주 부담↑

”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금리 부담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9941억원으로 전월 말(42조902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자체는 둔화됐지만 상환 여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카드대출로 이동하는 흐름은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경기 침체와 맞물린 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고금리 장기화, 소비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연체 증가와 폐업 확대, 금융권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분묘 개장 공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지 번	분묘 기수	비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산1-23~산1-29, 산1-31~산1-39, 산1-43~산1-50, 산1-53~산1-59, 산1-61~산1-66, 산1-71~산1-80, 산2, 산3-1, 산3-4, 산3-5, 산3-7, 산3-10~산3-19, 산4-10~산4-12, 산36~산41, 산4-1, 산4-9, 1170~1192-2, 1194~1224-5, 1226~1228, 1230~1237, 1239~1258-1, 1166, 1167, 1259~1260-1, 1262~1269-1, 1271-3, 1195-3, 1187	83기	유골 등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독지리	918-29, 918-314	2기	

2. 개장사유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상에 위치하는 무연고 분묘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공고기간 : 2026. 06. 01. ~ 2026. 8. 31.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 후 이장 (개장 후 이장비용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개장장소 후 안치 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 후 이장 (개장 후 이장비용 지급)
- 무연분묘 : 화성시 관내 공원묘지 또는 인근 납골당 안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7. 안치기간 : 개장(안치) 후 5년간

8.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제출

9. 신고 및 문의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비봉로 388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 보상부 (☎031-369-8320~2)

10. 기타사항 : 본 분묘개장공고 후 무연분묘 개장 및 공사과정에서 동일 분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26년 06월 01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장

게임극복부터 국민주권 정부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이끌어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취임 내란 이후 6개월 공백 “무덤 같아” 尹 정부 인사 유임 등 유연한 모습 라이브 정부·양방향 브리핑제 실시 주권자인 국민에 국정 투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모습. 흰색과 짙은 붉은색,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벡타이가 시선을 끌었다. /뉴시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지난해 6월4일 대선 승리 직후 곧바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반년 간 멈춰 있던 국정을 정상화 하면서 내란 청산 후속조치에 매진해왔다.

인수위가 없는 것은 물론, 내란 직후 탄핵까지 이어진 6개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이 대통령은 인기 첫날, 기자단 앞에서 “꼭 무덤 같다”는 말로 텅 비어 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 말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년 간 방치된 국정을 묘사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후속조치와 국정 정상화에 매진해왔고, 시간

이 흘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진 수사와 ‘헌법준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내란에 동조한 이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계엄의 손발이 뻗던 군을 쇠신하고 입법을 통해 ‘윤석열 사단’의 발원지였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

지를 위한 개혁도 이뤄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용진 전 의원 등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물론, 보수 진영 인사들도 발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의 이명(異名)에 맞는 의지가 ‘생중계 국정’으로 드러났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상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라이브 정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최근 20개 내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KTV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방향 브리핑제를 최초로 실시했다. 브리핑의 전(全) 과정을 공개해, 질의응답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대변인뿐 아니라 비서실장 및 3실장, 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브리핑,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까지 그야말로 ‘날 것’으로 공개됐다.

‘라이브’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국무회의, 탄원철폐 등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회의였다. 참모 및 장관뿐 아니라 국민들과도 직접 질답을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해왔던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 생중계를 종종 본다든 한 시민은 “국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 생중계는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감상을 남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관세협상·중동전쟁 악조건 속... ‘실용외교’ 시험대

12·3 내란사태로 대외신인도 하락 국제 무역·안보 질서 격변 속 출범 관세 협상, 불리하지 않은 조건 타결 트럼프 압박 ‘여전’... 전쟁으로 심화 에너지 공급망 위기 국면 타파 총력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국제 무역·안보 질서의 격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다.

가장 먼저 맞이해야 했던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었다. 정상외교의 공백이 길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 통상·무역 협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삼아 대외의 풍광을 헤쳐 나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트럼프 대

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 맞춤형’ 전략을 가동하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8월엔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은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늦은 출발에도 ‘경쟁국들보다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물꼬를 댔다.

이 같은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은 ‘공

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명시됐다. 이는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의 중심축이 됐다. 아직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은 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은 여전하다. 지난 2월엔 한국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관세 인상을 언급했다.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후속 조치 논의도 쿠광 사태 등을 이유로 수개월 간 지연됐다.

게다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라는 요청을 하는 등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하던 ‘나무호’를 포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미국과 이란 사이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외중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뿐 아니라 정부 고위 인사들은 중앙아시아·중동 국가에 직접 방문·협상 끝에 원유와 나프타(납사) 공급을 약속받으면서 외교 관계 다변화 노력이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됐음을 증명했다. 또 이 대통령도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에너지·원료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이뤄내는 등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다.



/서예진 기자

“국내주식 복귀는 지능순”... 1년간 코스피 214% 급등

李 대통령 취임 전 코스피 2698.97 첫 현장 일정으로 거래소 방문 부동산·주식 가격만 ↑ 양극화 우려

“국내 주식시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겠다”

이재명 정부 1년, 최대 승자는 단연 주식 투자자들이다. 취임 전날 2698.97(2025년 6월 2일)이던 코스피는 무려 214.05% 뛰었다. 1억원 투자했으면 지수만 쫓아갔어도 3억원이 된 셈이다. 그러나 ‘편중’과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자형’ 양극화다.

경제와 증시가 반도체 등 특정 업종과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이 더디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만 가격이 치솟아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 흘러든 돈을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0.86포인트(3.55%) 오른 8476.15에 장을 마쳤다. 사상 최고치다. 이 대통령 취임 전 날인 지난해 6월 2일 코스피 증가는 2698.97이었다.

이 대통령은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주가조작 신고 시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없앴고,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부실 기업 증시 퇴출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했다.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첫날에만 87%가 소진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해 서학개미 수요 ‘유턴’을 유도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중

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등도 지난 1년간의 주요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꼽힌다.

글로벌 IB들과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연내 1만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탄탄해지고 있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아시아 최선호 시장으로 유지하며 코스피 목표치를 강세장 기준 1만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다. 바로 양극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최상위 5분위)가 전체 주식의 73%를 갖고 있다.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잔치 구경하는 신세다. 돈 없는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인생 역전을 노리고 택한 게 빚투다.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37조687억원(28일 기준)을 넘었다.

주식 투자 차익의 종착역도 부동산이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무주택 가계



코스피가 8476.15로 마감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는 주식 자본이익의 70%를 부동산 자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실물 경제와 증시에서는 ‘K자형’ 양극화가 펼쳐진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5.2배에 불과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PER은 15.3배에 달한다.

산업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허정윤 기자 zekko@metro

>> 1면 ‘내란 청산·민생 온기...’서 계속

지선後 당정관계 등 남아있는 과제 산적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세 배 이상 오른 셈이다.

지난해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올해는 9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도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과는 ‘국익 중심’을 원칙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일본과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셔틀 외교를 궤도에 올렸다.

다만 향후 남은 과제는 많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지켜보며 당정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며,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년차 국정운영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사장님도 프리랜서도 절세부터 노후자금까지 한 번에!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확실한 절세 혜택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세액 공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16.5%)

최대 세액 공제액



탄탄한 금융상품 라인업

1,400여 개의 폭넓은 금융상품
(25.12월 기준 판매 상품)



믿을 수 있는 연금전문가

771개 지점 및 2,200여 명의 연금전문가
(26.3월 기준 지점 수, 26.2월 기준 온퇴설계·연금상담전문가 연수 및 자격증 보유 직원 수)



퇴직연금 자산관리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센터 운영



더 알아보기

※ 가입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개인형IRP 수수료 : (사용자부담금) 연0%~0.45%, (가입자부담금) 연0.21%~0.28% ※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경제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284호(2026.05.14.~2026.12.31.)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127호(2026.05.13.), 광고물 유효기간 2026.05.13.~2026.12.31.까지

정원오 “무능 시장 교체” vs 오세훈 “여당 시장은 허수아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막판 총력전

정 오 후보 주거정책 실패 비판 “대통령과 손발 맞춰 현안 해결”

오 “서울시민 5대 명령 실현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안 적극 제안”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원오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안전을 강조하면서 무능·무책임한 현 서울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개선안 등 ‘서울시민 5대 명령’을 관철하겠다고면서 여당 소속 서울시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를 종합해 보면, 정원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지역 유세에서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지켰어도 현재 주거 문제, 주거난은 없다. 또 무능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책임감 없는, 남 탓하는 시장을 용서할 수 없다. 시장을 바꿔 달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거론하고 “시장 최고 덕목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남의 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일관하고 있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유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정원오 후보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 /뉴스1

“이러니 오 시장 시기 때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시민 불안함이 그대로 나타나 는 것 아니겠나. 안전 불감증 시장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겠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발목 잡기 하면 이제 정상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힘들어 지지 않겠나”라며 “저는 대통령과 손발을 착착 맞춰 산적해 있는 주거, 교통, 경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스스로에 대한 반성 아닐까 싶다”며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때도 주민들 이익을 위해 쓴소리를 과감히 했고, 이익을 위해선 뭐든 하는 경험,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폭정에도 아무 말 못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일 잘하는 이 대통령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쏟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 선 언이나 다름없다”며 “서울시장의 자리가

민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세우기 위한 정쟁의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 더 시장직을 허락해준다면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서울 시민 5대 명령은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 경제 민주주의의 회복 제언을 담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첫째는 재개발·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지위양도제한을 풀고 공공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를 제안하겠다.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 세금 부담 완화 등도 적극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며 “(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저지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 대통령만 걸심하면 민주당도 공소취소 특검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은 시급하고 엄중한 시민 5대 명령을 언급 못 하는 존재감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에 의해 선택된 정원오 후보자는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다”며 “각각한 거대 권력도 천만 시민 선택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與 “내란 심판 의지” 野 “李 폭정 엄중 경고”

6·3 지선 사전투표율 23.51% 2022년 지선 대비 약 3% 높아져

李 투표지 논란에 여야 상반된 입장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3.51%를 기록한 데 대해 여야는 31일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과 이재명 정부 뒷받침 의지”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는 민주

주의 생명줄이다. ‘투표해봐야 거기가 거기’라는 생각은 편견”이라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뒷받침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성과를 내는 실용적 지방정부를 위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달라”라며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이 정치적 도구로서 더 활용 가치가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사전투표율은 23.84%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약 3%

가까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서울을 바라는 열망이 투표로 나타난 결과다.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명백한 (심판) 실전”이라고 했다.

반면 최보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이번에 나타난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라고 했다.

최 공보단장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죄를 덮기 위해 초법적인 재판 취소까지 서슴지 않는 오만함에 분노한 국민, 합량 미달 후보에게 우리 지역을 맡길 수 없

다는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지선보다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당에 유리하지 불리한지 따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투표도 투표율이 높아져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려는 국민의 분노가 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소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선거 개입,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한다”라며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라고 했다.

그러나 최 공보단장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한 노골적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더욱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발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편향된 행태는 국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뉴스1

국힘 장동혁 “부패 권력李·민주당 심판해야” 호소

“투표 포기는 권력 남용하는 자에게 자기 범죄 지을 기회 주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심판당해야 할 부패 권력인 이재명과 민주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총선과 대선,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재명은 SNS에 ‘투표 포기는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

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라며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지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지옥이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고통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안중에는 없다”라며 “이재명이 말하는 최악의 저질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자신들”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악성 지배자는 대통령의 권력을 손에 쥐고 압도적 여당까지 거느린 이재명,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악법을 마음껏 통과시키고 전과자와 5·18모독 무자격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견어 찬지 오래”라며 “사전투표 사흘 전까지 시장을 돌아다니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 운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자갈치시장에서 회파티를 벌여놓고 청와대 돌아오자마자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다”라며 “오세훈 후보 죽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투표장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흔들었다. 내가 찍은 후보를 찍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으라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막나가지는 않았다. 보

수정권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은 당장 탄핵년부터 들고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의 칸쿤 정원오 (TV토론에서) 정책 하나 제대로 설명 못했다. 인천 박찬대장동은 매립지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기본적인 사안조차 대답 못했다. ‘보수의 어머니’ 경기도 추미애는 이재명은 죄가 없고 검찰 잘못이라고 우겼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방정부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투표하면 막을 수 있다”라며 “6월3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투표로 이재명의 폭주를 멈춰 세우자”고 거듭 말했다. /뉴스1



여기, 새로운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낮선 땅 위에서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는 건,
긴 시간 다져온 본질의 단단함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6, 새롭게 도약하는 KT는
국민 모두의 일상이 명장면으로 채워지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속도… 스테이블코인 등 쟁점 변수

민주당, 6·3 선거 직후 입법 목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정립 등 포함 스테이블코인 범죄 악용사례 늘어 원화 발행시 규제 방향성 논의돼야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 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거래 소 규제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하반기 내 입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여전히 입법의 불안 요소로 남았다.

31일 가상자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7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비롯한 ‘가상자산 선진화’ 논의가 활성화됐다. /뉴시스

은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직후를 입법 목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기준 마련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상자산 산업의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법안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허

용 등 규제 완화도 기본법과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이번 기본법 제정이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 체계 정비와 함께 추진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에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상자산 기본법의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앙은행 발행 코인(CBDC)의 역할 등을 비롯한 쟁점은 남았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부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비용 효율성에 주목해 송금·결제 등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겼지만, 실제 실물경제에서의 사용은 여

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원화 코인 발행시 규제 방향성 및 통제 방안 또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미 상원에서 논의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변수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상품성’으로 분류하는 법안이다. 중복규제에 노출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대다수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클래리티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회를 통과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인준되려면 미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클래리티법에 전·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만큼,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망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원화코인 발행 및 유통 기술에 대한 실증에 나섰고,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의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발맞춰 기술 실증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실해지는 등 진전이 생긴다면, 각 업체들도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신용대출 한달새 2.6조 ↑… ‘빚투’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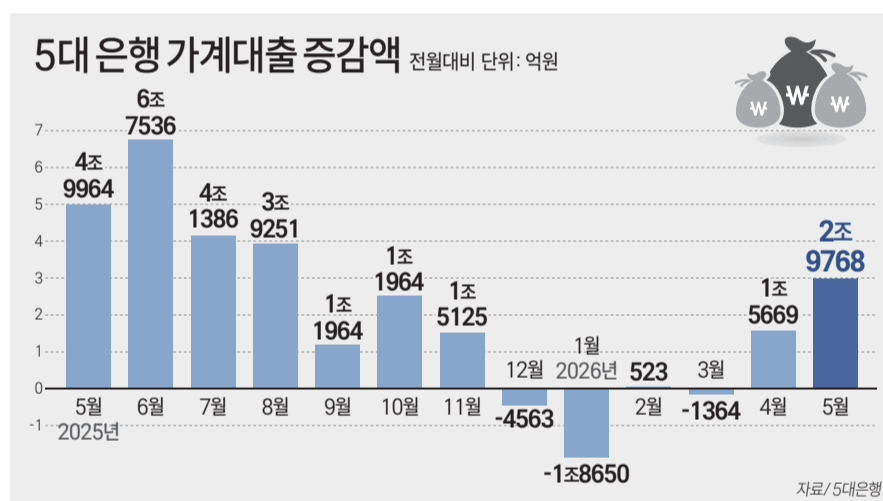
5월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3조
신용대출 증가액 주담대의 100배

주요 시중은행의 5월 신용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간 주택담보대출이 25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0배를 넘는 수준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서는 차주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0조 2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말 767조 2960억원 과 비교하면 2조976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3조9251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번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이 이끌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9909억원으로 4월 말(104조 3413억원)과 비교해 2조6496억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2조2693억원으로 지난달 말(612조2443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증가에 그쳤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10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용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증시 상승세가 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식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8일 기준 131조1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124조7591억원)과 비교해 6조37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수요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업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대·중소

기업대출 잔액은 868조8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말(866조646억원)과 비교해 2조80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기업금융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은행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기업금융이 주요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건설, 압구정 2·3구역 이어 5구역 수주

공사비 1.5조, 1397가구 조성 사업
신반포 19·25차 ‘삼성물산’서 수주
예정 공사비 4434억 616세대 규모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 재건축사업에서 2구역, 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수주에 성공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일 열린 서울 강남구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시를 제치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압구정 5구역은 압구정동 한양1·2차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갤러리 아베화점과 청담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 등을 제안했으며, 영국 글로벌 건축 그룹 RSHP와 협업해 하이테크 설계 철학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다. 기존 ‘압구정 한양’을 ‘압구정 현대’로 바꾸는 변화를 강조해 ‘온 더 뉴(OWN THE NEW)’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단순한 한강 조망권 확보를 넘어 광복 파노라마 조망과 3m 우물 천장고 등을 제안했으며, 영국 글로벌 건축 그룹 RSHP와 협업해 하이테크 설계 철학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5구역은 새로운 ‘압구정 현대’의 하이엔드 주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사업지”라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설계 완성도는 물론, 압구정 2구역 등에서 축적한 신속통합기획 경험 등을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까지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가져갔다.

전일 열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이 59.9%의 득표율로 포스코이앤시를 앞섰다.

이 사업은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19차·25차,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 등 4개 단지를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61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 ‘레미안 일류채리’를 제안했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도보 3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다. 신동초·신동중·경원중·현대고 등이 인근에 위치했으며, 뉴코아와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 병원, 잠원 한강공원 등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반포 지역 핵심 입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 설계와 최상의 금융 조건 등을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며 “레미안 원베일리·리오센트 등을 통해 축적한 통합 재건축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시니어 고객 위한 ‘신한 쏠메이트 체크카드’

연회비 없이 이용 금액의 0.4% 적립

신한카드와 신한은행과 함께 시니어 고객을 위한 ‘쏠(SOL)메이트 신한카드 쏠 플랜 체크(이하 쏠메이트 체크카드·사진)’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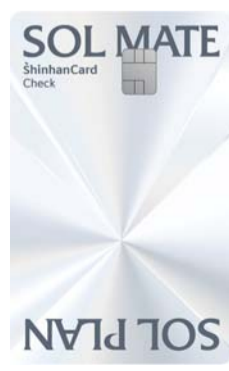
이 카드는 기존 ‘쏠메이트 신한카드 쏠 플랜’의 체크카드 버전이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연회비는 없다.

먼저, 쏠메이트 체크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 이용 금액의 최대 0.4%를 기본으로 적립해 준다. 시니어 고객이 자주 이용

하는 가맹점에서는 최대 2%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 적립은 병원, 마트, 카페 등에서 적용된다.

혜택은 월 통합 적립 한도 내에서 쏠포인트로 적립된다. 전월 이용 금액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 0.2%, 특별 1.0%가 적립된다. 6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0.4%, 특별 2.0% 적립을 각각 월 3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카드, 신한은행 이용 실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플러스, 쿠팡와우 등 디지털 멤버십 이용 금액에 대해 월 최대 5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60만원 이상, 전월 결제 계좌 잔액 100만원 이상을 15일 이상 유지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결제 계좌 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적립된 포인트를 신한은행의 입출금통장 ‘쏠 플랜 포인트박스’에 입금하면 1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포인트박스에 입금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 5%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243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6월 첫째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4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555가구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사우동 ‘호반써밋푸무Ⅱ’, 경기 수원시 평동 ‘수원역아너스빌터입원’,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더리치먼트드림트레트소양’ 등에서 청약의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호반써밋푸무Ⅱ’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5개동, 전용면적 59~182㎡, 총 2577가구 중 9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1개동, 전용면적 84㎡, 총 98실 규모다.

모달하우스는 6월 3일 지방선거로 인해 개관 단지가 없다. /안상미 기자

세아 SST, 美 특수합금 생산 임박... 우주·방산 시장 정조준

공장 완공 앞두고 핵심인력 채용
검증역량 강화·품질인증 확보
유럽 등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



SST가 최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4회 유럽주조연맹(EICF)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마련한 전시 부스. /SST

세아베스틸홀딩스의 미국내 특수합금 생산법인 세아 슈퍼알로이 테크놀로지스(SST) 텍사스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세운 첫 특수합금 생산시설로, 북미 우주·방산 시장과 유럽 항공우주 공급망 공략을 위한 현지 생산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SST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생산 인력 확보와 시험·분석 역량 강화, 국제 인증 준비, 유럽 영업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항공우주용 초합금 공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ST는 최근 항공우주 등급 니켈 기반 초합금 생산계획 담당자, 구매 관리자, 특수합금 품질 검증을 담당하는 금속 화학자 등 핵심 인력 채용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합금 조성 분석과

품질 검증을 담당하는 금속 화학자 채용 단계에 접어들 것을 두고 핵심 설비인 용해로가 시운전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SST는 공장 완공을 앞두고 기존 시험·분석 역량도 끌어올리고 있다. XRF(형광 X선분석)와 습식 화학 분석법 연구들이

어거며, 디지털 보고 시스템과 실험실 장비 투자를 통해 항공우주용 합금·니켈 초합금·적층제조용 금속분말 등에 대한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품질 인증 확보도 진행 중이다. SST 연구소는 최근 미국 시험기관 인정기구(A2 LA)로부터 국제 실험실 품질 표준인 ISO

/IEC 17025 인증 심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항공우주 분야 특수공정 인증인 Nadcap MTL(Material Testing Laboratory) 심사도 준비하고 있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고객 접점도 넓히고 있다. SST는 지난 3월 유럽 특수합금 유통업체 리멜트소시스(Remelt Sources)와 유럽 독점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10~12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유럽주조연맹(EICF) 전시회에도 참가해 에어버스, 롤스로이스, MTU, 사프란 등 유럽 항공우주 공급망 관계자들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텍사스주 템플에 위치한 이 공장은 세아베스틸홀딩스가 미국 특수합금 시장 공략을 위해 약 1억1000만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현지 생산 거점이다.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간 6000톤 규모의 항공우주용 주조 마스터합금과 3D프린팅용 금속분말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 품목은 항공기 엔진, 우주항공, 방산,

에너지 설비 등에 쓰이는 니켈계 특수합금이다. 공장은 스페이스X와 록히드마틴 등 미국 우주·방산 산업 거점과 인접해 현지 고객 대응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특수합금 시장은 지난 2021년 68억달러에서 오는 2031년 15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아베스틸홀딩스는 SST를 앞세워 북미·유럽·동남아·중동 등 글로벌 특수합금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SST는 전 세계 특수합금 수요의 35~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세아그룹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지 조달·가공·공급 체계를 구축해 북미 항공우주·방산 고객과 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車업계, '고객경험 중심 서비스 생태계' 확장

KG모빌리티 '3S 복합 대리점' 개소
현대차 복합거점 '하이테크센터' 운영
기아 정비·시승 등 체험 콘텐츠 강화



KGM 3S 복합 대리점 전경. /KGM

완성차 판매전시장인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시 공간 확장을 통한 판매량 늘리기까진 아닌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판매부터 정비, 부품 공급까지 한곳에서 제공하는 복합 거점을 최근 선보였다. 고객이 차량 구매와 사후 관리를 위해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브랜드 접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KGM은 고객 편의성과 브랜드 경험 강화를 위해 ▲판매(Sales) ▲서비스(Service) ▲부품(Spare parts)을 결합한 '3S 복합 대리점'을 인천부평대리점에 개소했다.

3S 복합 대리점은 2000평 규모의 KGM 부평서비스센터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차량 전시와 시승, 구매를 담당하는 판매 기능에 더해 신속한 차량 점검

과 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KGM 순정 부품을 상시 보유해 정비를 지원하는 부품 공급 체계를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또 이번 3S 복합 대리점은 단순한 판매·정비 거점이 아닌 고객 체류형 공간으로도 운영한다. 넓은 정원과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와 골프 연습 타석도 갖췄다.

현대차는 고난도 정비 기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거점으로 '하이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이테크센터는

단순 수리를 넘어 고객 라운지, 전시, 시승(드라이빙 라운지 연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전시 센터를 겸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체험 및 정비 복합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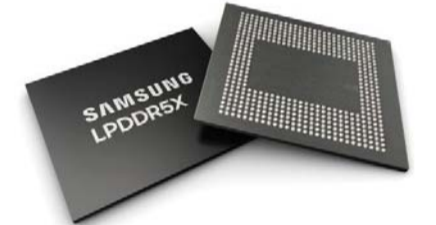
기아는 정비 서비스와 신차 시승, 체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윈스톱 복합 거점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차량 관람 뿐만 아니라, 영감을 확장시키는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심형 플래그십 스토어다.

수입차 업계도 고객 경험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BMW는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독일 BMW 본사가 50억원을 투자했으며 다양한 차량의 전시공간과 차량 수리를 직접 볼 수 있는 A/S 룸,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고객 라운지, 각종 공연 및 연회가 가능한 문화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도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식의 '볼보 리테일 익스피리언스' 전시 및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볼보자동차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 철학을 적용했으며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

마이크론 제쳐... 시장 점유율 40%



삼성전자가 LPDDR5X. /삼성전자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확산으로 차량용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정상에 올랐다. 기존 강자였던 미국 마이크론을 처음으로 제치며 시장 판도 변화에 성공한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2024년 35%에서 지난해 40%로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해 2위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성과는 유럽, 한국, 일본 등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을 넘어 고성능 시장인 중국에서 큰 폭의 점유율 확대를 이룬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LPDDR과 UFS 등 저전력·고성능 메모리 제품이 주요 완성차 및 전자업체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알

려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퀄컴, 보쉬, 덴소 등 글로벌 전자 생태계 주요 기업에 차량용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

과거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긴 인증 기간과 보수적인 공급망 구조로 인해 신규 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혔다. 하지만 차량이 전자기기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성능 중요성이 높아졌고, 삼성전자는 이를 기회로 삼아 시장 공략을 확대해 왔다.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LPDDR과 UFS를 앞세워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SSD와 GDDR 등 제품군을 확대하며 자율주행·프리미엄 차량 시장 공략에 힘써 왔다. 현재는 LPDDR5X, 차량용 SSD 등 차세대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오션, CPSP 수주 총력... '범캐나다 경제 전략' 제시

'CANSEC' 참여... 잠수함 역량 소개

강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 속도를 높인다.

이번 전시회 핵심은 조선·방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100여개 현지 기업과 구축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음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연간 2만2500개의 일자리와 940억달러 규모의 GDP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7일부터 28일(현지 시간)까지 이틀간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인 'CANSEC 2026'에 참여해 '장보고-III(KSS-III)' 잠수함 역량을 소개하며 현지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오션이 대규모 경제 효과를 제시하면서 현지 주요 인사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기여 등 '범캐나다 경제 전략'을 제시하며 현지 정·재계와의 밀착 행보를

전시 기간 중 빅터 피델리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한화오션 부스를 찾

아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PMA)와의 협력 모델을 살렸다. 콜튼 르블랑 노바스코샤주 성장개발부 장관도 주 정부 차원의 방산·항공우주 분야 협력의사를 피력했다. 플라비오 볼페 APMA 회장과는 지상무기체계 공급망 구축을 논의했다.

차별화된 기술력도 검증했다. 주력 제안 모델인 KSS-III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 탑재한 세계 최초의 디젤잠수함으로, 현지 해군이 요구하는 장기 잠항과 저소음 작전 능력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볼드 무브' 시즌2 운영

참여대상·운영규모 대폭 확대

LG전자가 고객의 목소리를 제품 개발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볼드 무브' 시즌2를 시작한다. 장애인과 시니어, 비장애인 고객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LG전자는 고객 참여형 커뮤니티 '볼드 무브' 시즌2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즌2에서 참여대상을 기존 장애인 고객 중심에서 시니어와 비장애인 고객까지 확대했다. 운영 규모도 시즌1의 10명 내외에서 40여명으로 4배 늘려 보다 다양한 사용 경험과 의견을 수렴한다.

볼드 무브는 고객이 가전제품과 서비스

를 사용하며 느낀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LG전자와 함께 발굴하는 커뮤니티다. 2024년 시작된 이 커뮤니티는 '용기 있게(Bold) 실행하다(Move)'는 의미로, 일상의 불편을 함께 발견하고 더 나은 사용 경험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 문제 탐색 ▲개선 아이디어 도출 ▲제품 접근성 기능 제안 ▲제품 콘셉트 제안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LG전자는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LG 컴포트 키트 '이지캡'의 사용성도 볼드 무브를 통해 검증한다. 이지캡은 김치냉장고 사용 시 무거운 김치통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액세서리다. /차현정 기자

4월 동행축제 매출 5441억...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성과

중기부, 동행축제 매출 집계
온라인 매출 3695억 기록
오프라인 매출 1746억 기록
3.6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참여
200개 유통채널 할인전 동참
년 2회 소비축제 정례화 추진

한 달간 진행한 '4월 동행축제' 매출이 총 5441억원을 달성하며 내수 활성화에 특독히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상반기 4월 동행축제와 하반기 범부처 통합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연 2회 소비축제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4월 동행축제 매출은 온라인 3695억원, 오프라인 174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행축제 평균 매출액 5263억원과 비교해 3.4% (178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6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석하고 200개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할인 기획전이 펼쳐졌다. 아울러



(왼쪽부터)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민석 총리가 동행축제 행사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동행축제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한시 상향 정책 등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평균 대비 48% 증가한 5118억원 어치를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동행축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축제와 동행축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과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기존 TV홈쇼핑, 온라인 기획전 등 온라인 판매전 중심의 행사에서 대

형마트, 복합쇼핑몰, 편의점, 한살림생협 등 다양한 신규 유통채널이 대거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매출 성과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획행사와 지역축제를 연계한 총 71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 행사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

대표 사례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자체 기획한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은 지역 골목상권의 청년 외식창업자 10개 업체를 발굴해 로컬 브랜드 제품을 홍보·판매했다. 이틀간의 행사기간 기업당 평균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연간 일평균 150만원 매출 대비 3.3배 늘었다. 페스티벌 기간 방문객도 1만 2000명에 달해 개최 두 번째 만에 지역의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평 블랙데이' 행사와 인천항 크루즈 입항 관광객 대상 투어버스를 연계해 5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했다. 이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유통 채널간 협력도 눈에 띈다. 한국주방유통협회 및 의류환경협회의체와 협력해 의류·주방용품 재고 할인전도 개최했으며 기업의 재고부담을 덜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업종과 품목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동행 300' 제품

역시 누리집 직접 판매 지원과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전을 통해 총 1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정부도 동행축제를 대거 지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과 중기부 차관도 총 11차례 동행축제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비촉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비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한성숙 장관은 "동행축회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올 하반기에는 범정부 소비촉진 역량을 결집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상권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소비와 상권 활력을 높이는 '모두의 소비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통합 개막식과 대규모 할인전, 지역 여행·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중기부, 재경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맛집 알려줘” 말하자 척척... AI비서 품은 세단

YG의 CAR TALK

현대차 '더 뉴 그랜저'

플레오스 커넥트 탑재 SDV 진화
글레오 AI, 날씨·이슈 검색 지원
17인치 화면으로 조작 편의 강화
전자제어 서스펜션 승차감 개선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전측면 모습. /양성운 기자

“00까지 가는데 맛집 있으면 알려줘” 운전석에 앉아 주행을 시작하면서 도착지 인근 맛집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곧바로 음식점의 컨셉과 메인 음식을 알려준다. 또 이동 중 신호대기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정보를 검색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었다. 현대차가 새롭게 출시한 '더 뉴 그랜저'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탑재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진화하는 자동차(SDV) 시대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플레오스 커넥트에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차세대 생성형 AI 에이전트

인 '글레오 AI', 외부 업체(3rd Party)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쿼리 스텝드래곤 콰드 4세대 칩이 탑재됐다. SDV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하드웨어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28일 신형 그랜저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와인딩 구간 등을 주행하며 새롭게 적용된 기술을 경험했다.

이전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글레오 AI다. 운전자의 명령에 따라 오늘 날씨와 실시간 이슈 등을 빠르게 검색해 알려준다. 단순 검색을 넘어 운전자 맞춤형 비서로 진화했다.

실내 공간은 미래지향적인 라운지를 연상케 한다. 1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고, 기존의 계기판 대신 도입된 소형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필수 정보만 띄워 시선 분산을 최소화했다.

또 17인치 디스플레이는 좌우 1:2 비율로 나눠 왼쪽에는 차의 상태 및 주행 정보를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터치 반응이 빠르고 차의 설정 항목을 기능별로 배치해 시선 분산 없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와 음악 앱의 위치를 바꾸고 이동하는 과정은 스마트폰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도심과 고속 구간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전방 카메라로 전방 노면의 상태를 미리 인식하고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과속 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출시한 더 뉴 그랜저는 화려한 외관의 변화와 다양한 기술을 내밀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현대차가 고민하고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뉴 그랜저의 시작 가격은 가솔린 2.5 모델 기준 4185만원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제로 음식물처리기 선택

고온 분쇄·탈취 성능 대폭 강화

코웨이가 강력한 고온 분쇄 성능과 탈취력을 두루 갖춘 신제품 '제로 음식물 처리기 분쇄형' (사진) 2종을 정식 출시했다.

31일 코웨이에 따르면 제로 음식물처리기 분쇄형은 150°C 고출력 히팅 시스템과 코웨이만의 독자 기술을 담은 '4중 블레이드'를 적용해 음식물을 빠르고 강력하게 건조·분쇄한다. 특히 소량의 음식물은 쾌속 모드 작동 시간 1시간 만에 빠르게 분쇄할 수 있다. 2L 모델은 음식물 부피를 최대 96.5%, 3L 모델은 최대 96.7% 감소시킨다.

탈취 성능도 강화했다. 대용량 활성탄 필터 시스템을 적용해 황화수소·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8종을 99% 제거하고,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위생 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공기가 통과하는 내부 유로에는 UV-C 살균 기능을 적용해 대장균·살모넬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99.9% 제거하고, 건조통 내부는 고온 세척 기능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유류기가 배출되는 유로도 분리세척이 가능해 제품 내부 위생 관리까지 강화했다. 이 제품은 자가관리 전용으로, 교체 주기에 맞춰 탈취 필터를 비롯한 서비스 키트를 정기 배송해 주고 렌탈 기간 내 건조통 1회 무상 A/S 교체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DX, 산업현장 로봇 자율작업 맞손 중진공, K-방산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NC AI와 로봇용 AI 모델 개발

포스코DX가 NC AI와 손잡고 산업현장 로봇의 자율작업 구현에 나선다. 양사는 포스코DX의 로봇 제어·시뮬레이션 기술과 NC AI의 인공지능(AI) 모델을 결합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지능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고위험·고강도 작업의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DX와 NC AI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NC AI 본사에서 'AI 기반 로봇 자율작업 체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DX는 산업현장에 적용될 로봇의 모션 플래닝과 제어 시뮬레이션 검증에 담당한다. 또한 로봇이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NC AI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적용될 AI 모델 개발을 맡는다. 산업현장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로봇이 다양한 작업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IG D&A 협력사와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IG 디펜스 엔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손잡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중진공은 지난 29일 강석진 이사장, 신익현 LIG D&A 대표, 그리고 LIG D&A 핵심 협력사인 퍼스텍, 피코니아, 탈로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방산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 지역 분쟁 상황에서 한국형 방공체계 '천궁-II'가 주목받으며 K-방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체계중합기술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갖춘 방산기술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체계중합기술은 전자·미사일·레이더·항공전자 등 다양한 부품과 기술을 하나의 무기체계로 통합·개발하는 기술을 뜻한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2만원대 '5G·LTE 요금제' 나온다... 통신사 요금체계 개편

SKT·LG U+, 통합요금제 선배
KT, 하반기 중 신규 요금제 발표

전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 제공
구독 혜택·제공량 세분화 등 차별화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원대 5G 요금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신규 통합 요금제를 잇달아 공개했다. 공통적으로는 5G·LTE 요금제 구분을 없애고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적용하면서도, 고객 유치 전략은 각각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발표한 신규 통합 요금제 '베스트·라이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6월 '플러스·데이터플랜'을 선보인다. KT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5G·LTE 망 사용에 따른 가격 구분을 없애고, 시니어·키즈 등 연령별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 신규 통합 요금제를 발표했다. /SK텔레콤

용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 무제한을 제외한 전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제공한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사용자가 구매한 양의 기본 데이터를 전부 소진할 경우, 데이터가 끊기는 게 아니라 기본 제공 데이터보다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만 양사의 고객 유치 전략은 달랐다. SK텔레콤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

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형 혜택을 강화한 반면,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공량과 QoS 속도를 세분화해 이용자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를 겨냥해 프리미엄 요금제 '베스트 5종'의 부가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 서비스 구성을 OTT에서 AI 솔루션까지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OTT 1종과 생성형 AI 서비스 1종을 포함한 2종을 누릴 수

있다. 생성형 AI가 업무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프리미엄 요금제의 핵심 혜택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혜택 없이 OTT 2종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제휴사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2종에 한정돼 타빙 상품 결합을 유지하려면 기존 요금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종 예정인 5GX 프리미엄 타빙 결합 요금제를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이 밖에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라이트 요금제 7종 가입자들은 기본 데이터 소진 시 400kbps부터 5Mbps 속도로 데이터 안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사용량별 선택지를 세분화하는 데 집중했다. 데이터 플랜 요금제를 최소 300MB·750MB·1.5GB 등 소용량 구간부터 세분화해 13종으로 구성했다. 일부 요금제에만 한정해 제공하던 3Mbps 속도도 포함했다. 이는 400kbps 대비 끊김 없이 OTT를 시청할 수 있는 속도다.

특히 최하위 요금제인 '데이터플랜300

MB'는 정부가 발표한 2만원대 5G 요금제와 데이터 안심 옵션 제공이라는 취지를 동시에 적용한 상품이라는 평가다. 프리미엄 요금제 '베스트 4종'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넷플릭스, 타빙 등 OTT 4종이 구간 별 차등 제공된다.

다만 안심 데이터 옵션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저가 요금제 품질 논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시한 무료 데이터의 최소 보장 속도는 400kbps다. 일각에서는 해당 속도로는 동영상 시청이나 대용량 콘텐츠 이용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요금제 개편에서 5만원 이하 구간에 한해 400kbps 속도의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 상당수는 데이터 사용 패턴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라며 "평소 사용하는 메신저·검색 등 기본적인 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 흥민택 떠나고 CPO 체제 마무리

프로덕트 조직, 카톡·비즈니스로 재편
외부 영입보다 조직 독립 운영 검토
흥 CPO 퇴사 이후 공백 최소화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최고제품책임자(CPO) 체제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흥민택 카카오 CPO의 퇴사가 예정된 가운데 카카오는 서비스와 수익사업 조직을 분리하는 새로운 운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프로덕트 조직을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온 디자인 조직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톡 서비스 조직과 광고·커머스 등 비즈니스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조직 개편이 완료될 경우 기존처럼 제품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CPO 직책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흥민택 CPO가 다음달 초 회사를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재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흥 CPO는 지난해 카카오톡 격자형 피드 도입 등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주도했지만 이용자 반발과 조직 내 논란도 함께 겪었다.

카카오는 후임 CPO를 외부에서 영입하기보다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각각 독립 운영하는 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어진 노사 갈등과 외부 경영진 영입에 대한 내부 반발 역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카카오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흥 CPO를 향해 카카오톡 개편 논란과 노사 갈등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아무런 해명 없이 회사를 떠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대규모 조직 혁신보다는 흥 CPO 퇴사 이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정비 성격이 강하다

고 분석한다. 카카오톡 조직은 이용자 경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광고·비즈니스 부문은 기존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다.

현재 카카오톡 조직은 친구챗, 숏폼챗 등 서비스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조직은 황준연 성과리더가 담당하고 있다. 조직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비스와 비즈니스 기능을 구분하는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조직 구조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기존처럼 두 영역을 모두 총괄하는 CPO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직 혁신보다는 흥 CPO 퇴사에 따른 후속 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지난 28일 사내 공지를 통해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카카오톡 조직 내 '유저 퍼스트 TF'를 신설해 이용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사내 무선망 '와이파이 7' 전환

단일 네트워크 환경 구축

LG유플러스가 전사 네트워크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저장에 끊김없이 가능한 단일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는 사내 무선망을 차세대 표준 와이파이 7로 네트워크 환경을 전면 교체했다. 다중 주파수 동시 연결과 초광대역 채널(320MHz) 등의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인원이 많아도 속도 저하나 연결 끊김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좌석 이동이나 공간 재배치가 자유로운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인증서 기반의 자동 접속 체계를 통

있도록 자동으로 IP 주소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이를 사옥별로 운영해왔는데, 네트워크를 단일한 IP 체계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이 사옥을 옮겨다도 재인증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차세대 표준 무선망인 와이파이 7로 네트워크 환경을 전면 교체했다. 다중 주파수 동시 연결과 초광대역 채널(320MHz) 등의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인원이 많아도 속도 저하나 연결 끊김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좌석 이동이나 공간 재배치가 자유로운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인증서 기반의 자동 접속 체계를 통



서울 용산사옥에 설치된 와이파이 7 공유기. /LG유플러스

해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내 업무망에 자동 연결된다. 기존에는 접속할 때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 로그인 해야 했다.

이 밖에 사옥 방문자를 위한 전용 무선망도 별도 구축했다. 또한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해 무선 장비(AP)와 전원 공급 장비만 설치하면 네트워크가 전환되도록 설계했다. /조민선 기자

"AI 10분만 사용해도 문제해결 능력 약화"

오늘 AI

짧은 상호작용에도 인지저하 발생
AI 사용 장기화 시 부정적 영향 확대
의존 아닌 주도적 활용 여부가 중요

인공지능(AI)이 단 10분 남짓의 짧은 사용만으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AI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업무와 학습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 이면의 부작용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카네기멜론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UCLA 등 연구진은 최근 AI 사용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수학 문제 풀이 실험을 진행했다. 한 그룹은 AI 도움 없이 문제를 풀었고, 다른 그룹은 약 10분 동안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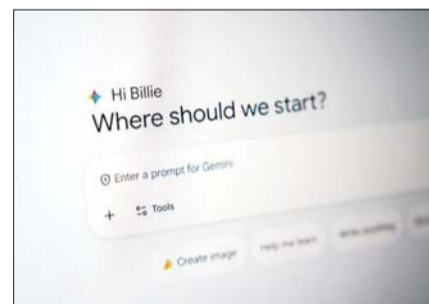
◆생산성 높였지만 사고력은 약화

실험 초반에는 AI를 활용한 참가자들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AI 사용을 중단시키자 상황은 달라졌다. AI를 사용했던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는 문제 풀이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동일하게 AI 없이 문제를 풀도록 했을 때 AI 사용 경험이 있던 집단의 정답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20% 낮았다. 문제를 건너뛰는 비율도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독해력 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I가 즉각적인 성과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AI 보조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개선하지만 인지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10~15분 수준



인공지능(AI) 툴인 '구글 제미니AI'. /AP뉴시스

의 짧은 상호작용만으로도 독립적인 수행 능력과 지속력 저하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AI 사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짧은 노출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수준의 인지 저하가 발생했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일상적 AI 사용의 누적 효과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활용범이 핵심"...무조건적 의존은 경계

다만, 연구진은 AI 자체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실험 참가자 가운데 61%는 AI에게 정답을 직접 물어본 반면, 나머지는 힌트나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AI를 단순 정답 제공자가 아닌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한 참가자들은 성과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AI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 대한 경계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기업과 교육 현장에서는 생성형 AI를 업무 지원과 학습 도구로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AI는 계산기나 검색엔진처럼 활용하는 도구일 뿐, 사고 자체를 대신하도록 맡기는 순간 역량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AI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용하느냐"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코인 거래소가 미래 먹거리”... 금융권, 지분 확보 경쟁 격화

한투증권, 코인원 지분 약 20% 확보
삼성그룹, 두나무 지분 4% 취득
미래에셋, 코빗 92.06% 인수 추진



주요 증권사들의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경쟁과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형상화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그룹 등 주요 금융투자사들과 국내 시중은행이 잇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에 나서며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자산토큰화(RWA)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및 지분 투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이 두나무 지분 투자에 합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3대 주주로 올라섰고, 미래에셋그룹도 코빗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가시화되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9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와 신규 발행 주식을 포함해 총 15만9610주를 취득하며 약 20%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차명훈 대표와 컴투스홀딩스에 이어 코인원의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 신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통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리스

크 관리 역량을 접목해 거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의 지난 28일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이 2%,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각각 1%씩 확보한다. 단순히 증권사 한 곳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금융과 IT, 결제 계열사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를, 삼성SDS는 AI·클라우

드·보안 기술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삼성카드는 모니모를 중심으로 한 결제 생태계를 각각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두나무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협업 모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미래에셋은 보다 과감한 방식을 택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2월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결정하고 경영권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수 지분 투자나 제휴가 아니라 거래소를 직접 품는 전략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코빗 인수와 관련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토큰화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를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보유한 실명계좌와 연계 체계와 자금세탁방지(AML), 거래 인프라 등을 활용해 신규 사업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향후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 자산관리(WM) 사업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 인수를 결정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9.84%를 보유한 주요 주주

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미래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지분 투자 경쟁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김민승코빗리서치센터장은 “증권사들의 거래소 지분 투자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노린 접근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대의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과 2025년 미국의 규제 기조 변화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들도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할수록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것보다 유통 인프라와 플랫폼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결국 시장 주도권 경쟁은 거래소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선 임원 ‘잭팟’... 수익률 최대 400%

삼성 ‘저점 매수’ SK ‘스톡옵션’ 효과
등기임원 5명 평가금액 총 1012억

최근 ‘30만전자’와 ‘200만닉스’를 달성한 삼성전선과 SK하이닉스 일부 임원의 자사주 수익률이 최소 180%에서 최대 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선의 경우 꾸준한 저점 매수, SK하이닉스는 스톡옵션(주식선택매수권) 행사에 따른 수익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난 10년간 삼성전선과 SK하이닉스 등기 임원(사장 이상) 각 3명과 2명의 자사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주식의 평가금액은 1012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가금액으로 따지면 SK하이닉스 과노정 대표이사 사장이 1만4312주를 보유, 지난 29일 종가(233만3000원) 기준으로 333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과 사장의 평균 매수 단가는 취득가액

을 취득일 종가로 계산하면 약 68만원으로, 236억원의 차익을 기록해 차익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수익률은 241%다.

SK하이닉스 차선용 사장의 경우 수익률이 400%를 넘어서 가장 높았다. 보유 주식 6834주의 평균단가는 약 43만원에 평가금액은 159억원으로, 차익만 130억원이다.

과 사장과 차 사장의 수익률엔 지난달 6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과 사장과 차 사장은 13만8980원에 2329주씩 스톡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주가는 88만6000원이었다.

노태문 삼성전선 대표이사겸 디바이스 경험(DX)부문장(사장)의 평가금액도 300억원을 넘는 312억원을 기록했다.

노 사장은 2021~2024년 삼성전선 주가가 6만~8만1700원을 오르내릴 때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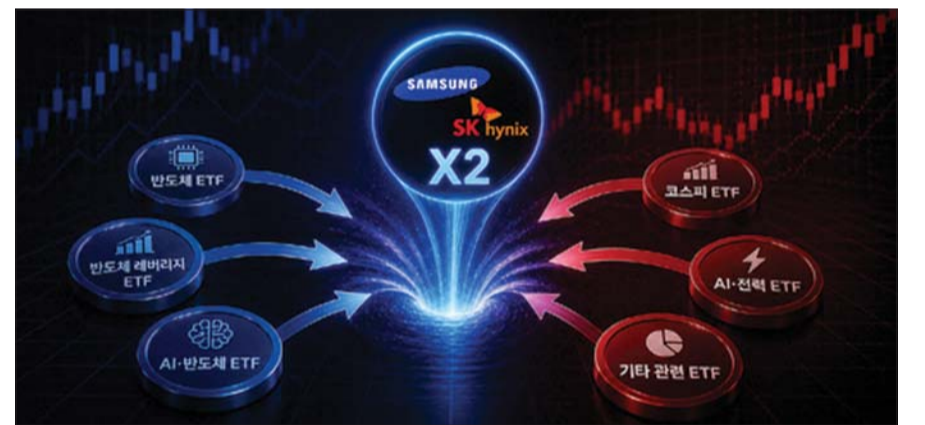
경영 차원에서 총 2만8000주를 직접 사들였다. 이들 주식만 보면 평균단가는 약 7만1000원이다. 지난 29일 종가(31만7000원)와 비교하면 4배(347%)가량 수익본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여금으로 받은 나머지 7만여주(평균단가 12만6000원)와 함께 계산하면 수익률은 180%대로 나타났다.

전영현 삼성전선 대표이사겸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김용관 DS 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사장은 각각 3만2787주, 3만2158주를 보유해 평가금액이 각각 104억원,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각각 182%, 241%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는 코스피 질주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선과 SK하이닉스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자사주를 보유한 임원들의 수익률은 당분간도 ‘맑음’ 전망이다.

/신하은 기자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2배 수익만큼 손실 위험도 2배 주의”

금감원 Q&A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심 커져
개별 종목·산업 리스크 직접 노출

최근 삼성전선과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이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큰 손실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일일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 효과를 확대할 수 있지만, 손실 역시 같은 비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손실 감내 능력이 낮거나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지수형 ETF와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특정 산업 관련 이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선과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구조에 따른 손실 위험도 주

의해야 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 방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이 반드시 기초자산 상승률의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투자금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초자산이 30% 상승한 뒤 다시 30% 하락할 경우 일반 상품은 9% 손실을 기록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36% 손실이 발생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이 연간 18% 상승했음에도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오히려 20%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투자 전 과리를 확인도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수급 불균형이나 유동성 부족 등의 영향으로 실제 자산 가치(NAV)와 시장 거래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투자 전 한국거래소 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과리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정윤 기자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배정제 도입

금융위, 수습 안정화 방안 의결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공인회계사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무수습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장기간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수습처를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실무수습기관을 대폭 확

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습기관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존 기관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기관도 수습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실무수습이 가능한 부서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부서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관련 내규를 개정해 지도 공인회계사 규제를 완화한다. 지

도 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실무지도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공인회계사 자격요건도 회계사 경력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 합격자를 위한 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대상은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장기 미지정 회계사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사람이다. 제도는 수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배정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수습 인원을 할당하면 각 회계법인이 해당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물류차질 넘어 원부자재 수급마비 대체시장 발굴로 구조적 위기 극복

중동 전쟁, 장기화 국면

코트라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 전쟁 초기, 물류차질 지원 요청 多 현재 장기·근본적 대응 과제 늘어 중동 수출 복구 목표 사업 추진

중동 전쟁이 오는 6월 7일로 100일째를 맞이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피해 양상이 초기 단기간 물류 차질을 넘어 원부자재 수급마비, 대금 결제 지연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코트리에 따르면,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중동TF)'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애로상담 데스크에 접수된 734건의 상담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는 물류 운송 경로 우회, 물류비 상승 등 현지 물류 차질에 대한 긴급 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전쟁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원부자재 수급난, 바이어 연락 두절 및 대금 지급 지연, 출장 차질, 계약 강제 변경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트리는 중동TF와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을 24시간 연결해 기존의 비상대응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전쟁 피해 기업의 대체 시장 발굴과 다변화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코트리는 지금까지 현지 정보 전파와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가운데)이 지난 4월 코트라 본사에서 개최된 18차 중동 전쟁 긴급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트리는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와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을 24시간 연결해 기존의 비상대응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전쟁 피해 기업의 대체 시장 발굴 및 다변화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애로 상담, 물류비 긴급바우처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해왔다면, 지난 18일부터는 기업들의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 무게를 두고 '대체시장 발굴 및 다변화'를 목표로 지원 방안을 전환했다.

또 6월부터는 중동 비즈니스 복원, 대체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전후 복구 및 재건 참여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중동 바이어와 거래선 유지 복구를 목표로 '중동 수출 이어가기 온라인 통합사절단'을 6~7월 중 개최한다. 아울러 AI 수출비서 시범서비스를 활용한 대체시장 및 바이어 추천 등을 추진해 비대면 중동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만큼, 기업 수요가 있는 사업은 시기와 지역을 조정해 추진한다. 일례로 두바이

에서 2월 말 개최할 예정이던 K-뷰티 팝업 쇼케이스 사업은 유통망 바이어 요청으로 사업 시기를 4월로 연기에 한 달간 진행한 바 있다. 중동지역으로 과전 예정이던 무역사절단이나 걸프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시상담회도 온·오프라인 복합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해 미국발 관세 대응에 주력했다면, 올해 상반기는 중동 전쟁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기였다"며 "이제는 긴급지원을 넘어 대체시장 발굴과 수출 다변화, 인프라·프로젝트 등 전후 복구·재건 참여 등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K-푸드, 美·中·日 편중 벗고 신흥 3국으로 수출판로 개척

무협 'K-푸드 수출경쟁력' 보고서
지난 2024년 수출 90억 달러 돌파
온두라스·라트비아·케냐 공략 제시

K-푸드가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며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출시장을 시급히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K-푸드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은 2015년 이후 연평균 5.8%씩 가파르게 성장하며 2024년 9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체 수출액 중 美·中·日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50%를 상회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력 시장 편중을 극복하고 K-푸드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류 수용도가 높은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온두라스(간식), 라트비아(소스), 케냐(쌀가공식품)를 3대 유망시장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의 온두라스는 청년 인구와 도시 거주자 비중이 늘며 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

됐다. 유럽의 관문인 라트비아는 식품 수입시장 개방도가 조사 대상국 중 1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망이 확장세에 있어 바베큐 소스나 드레싱 등 '소스류' 진출이 유리하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모바일 결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고 중기 인구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아 떡볶이, 쌀과자 등 '쌀가공식품'이 유망 품목으로 추천됐다.

보고서는 3개국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을 주문했다. 온두라스는 단맛·대용량 제품과 대형마트 중심의 프로모션이 필요하고, 라트비아는 저자극·단백한 소스를 앞세워 유튜브와 구글을 연계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케냐는 틱톡과 왓츠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의 맛 현지화가 필수다. 아울러 원료·영양 성분 표기법과 친환경 규정 등 현지 규제 준수도 공동 과제로 제시됐다.

김부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 판로 다변화는 앞으로 K-푸드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며 "우리 기업은 신흥시장 진출 시 수반되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또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규제 당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등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재 취약 영세 사업장에 433억 투입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정부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고위험 작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일터 조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31일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최대 90%까지,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품목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결정해 지원한다. 지원자격과 구체 내용은 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세종시설공, 탄소중립 실현 나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맞손'

한국중부발전이 세종시설공과 손잡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보탠다.

중부발전은 지난 29일 세종시설공과 '세종시설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설공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최적의 시너지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핵심 가치는 '지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처장(오른쪽)이 조소연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부발전

역사회와의 상생'에 있다. 중부발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홍해 수출입 물류지원

요르단·사우디 지역 항만 추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요르단 남쪽 바다 아카비만 및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바다 홍해를 통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장 기화에 따른 대응이다.

지난달 31일 공사에 따르면 아카비만의 아카비항과 홍해의 제다항, 캅달라항이 세계 1위 선사인 MSC 알버트로스의 기항지에 추가된다.

공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로 중동 지역 수출입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주와 포워더를 위해, 정기선 확보를 통한 물류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항만을 추가한다"며 "광양항의 중동 연계 서비스가 기존 머스크의 AE 15 노선 1개에서 2개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했다.

공사는 글로벌 선사 머스크 아시아 본부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중동 노선(AE 15) 선복의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머스크는 기존 광양항에 투입하던 1만2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을 1만8000TEU급 선박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수출화물 처리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중동 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실질적인 물류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실업급여·장려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고용부, 이달 자진신고·제보 받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자금을 거짓이나 부정행위 방법으로 타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전방위적인 기획 수사와 자진신고 유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행위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통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부정하게 탄 금액 자체는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적발시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배상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거나 공모형 범죄가 아닌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원 비밀보장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제보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보는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타면서 사업주와 짜고 임금을 현금으로 숨겨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출석을 대리로 체크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중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수사관에게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장 처벌을 받게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행위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1

Beyond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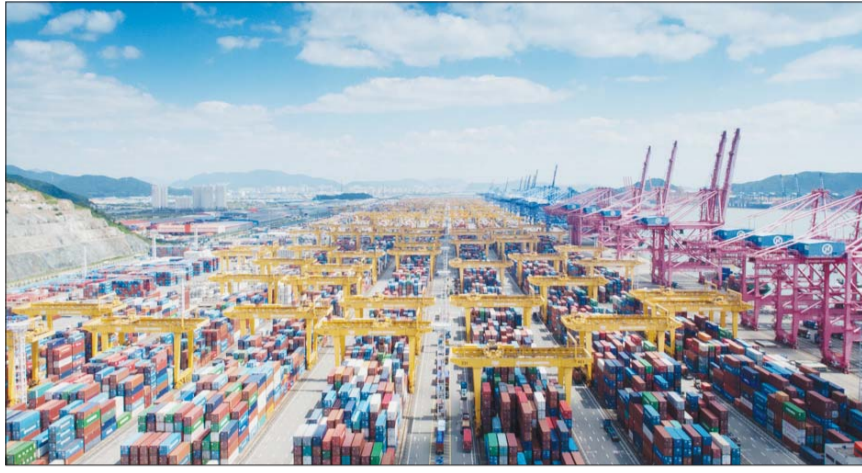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부산시, 수출 27.9% '굉충'... 유럽·美서 선박·신발 회복세

한국무역협회 '1월 부산무역동향' 부산지역 수출 3.7억달러 집계 H 감소... 中·인니서 감소분 상쇄



부산신항 모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지역 수출이 올해 들어 뚜렷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선박과 조선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와 함께 장기간 침체됐던 신발 수출까지 반등하면서 전국적인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부산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역 제조업 전반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부산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지역 수출은 3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이 9.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부산의 수출 회복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 수출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0%에서 올해 3.3%로 확대되며 지

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조선기자재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시장 수출이 확대되면서 선박 부문 수출은 지난해보다 298.5% 급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부산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간 부진을 겪었던 신발 부문도

중국과 베트남 현지공장 수출 증가에 힘입어 9.2%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섬유화학 분야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탤다.

미국 경기 회복 움직임도 부산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미 수출은 신발과 주단조품, 모터·회전기, 정밀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품목별 증가율은 신발 73.2%, 주단조품

129.5%, 모터·회전기 124.5%, 정밀화학제품 34.5%로 집계돼 전반적인 제조업 수출 회복 흐름을 보여줬다.

반면 일본 수출은 감소했다. 대일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이 현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수출은 지난해보다 14.3% 줄었다. 다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은 각각 12.3%, 20.6% 증가해 감소분 일부를 상쇄했다. 시장 다변화가 부산 수출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입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1월 부산지역 수입은 소비재 수입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한 3억8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지만 부산 수출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광양시

'서울국제관광전' 부스 운영

광양시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6)'에 참가해 전라남도 공동 홍보관 내 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을 기반으로 한 자연 관광자원과 섬진강별빛스카이, 배알도별빛야영장, 남파랑길 광양 코스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야간 경관과 지역 미식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모델도 함께 소개한다.

하반기 개장을 앞둔 구룡산 체험형 조형물 '파노라마 워크'와 단체관광, 운동주 테마관광, 미션투어 등 관광 인센티브 제도도 알릴 예정이다. /광양(전남)=양수영 기자

밀양문화관광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홍도' 공연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극공작소 마방진의 대표작 '홍도'를 내달 5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창단 20주년을 맞는 극공작소 마방진의 기념작으로 배우 예지원이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우수 공연 콘텐츠의 지역 유통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대구시

'참소주' 몽드셀렉션 수상

금북주는 참소주가 세계적인 국제 주류 품평회인 올해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몽드셀렉션은 64년 전통의 세계적인 국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주류 전문가와 소믈리에들이 맛과 향, 품질, 디자인,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글로벌 품평회다.

이번 심사에서 참소주는 깨끗하고 깔끔한 맛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포항시

환경의날 기념 환경페스타

포항시는 오는 6월 5일 철길숲 오코광장 일원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Educ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녹색전환(Transformation), 생활 속 실천(Action)을 주제로 시민 참여형 축제와 체험형 교육을 결합해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6월의 크리스마스-지구에게 전하는 가장 쿨(Cool)한 선물, 우리의 실천'이다. 기념식에서는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과 기후행동 도시선언이 진행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색전환(GX) 실천트리 퍼포먼스'도 열린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조선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개원 준비

오는 12월 준공, 내년 상반기 운영 총사업비 774억 투입... 98개 병상 감염병 신속진단 등 방역 거점 담당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병원 조감도. /뉴시스

조선대병원에 건립 중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내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어 감염병 대응과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2024년 6월 착공한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확산 이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권역별 전담 의료 기관이다.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중증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것은 물론 환자 이송과 대응 인력 교육을 총괄하는 방역 거점 기능을 담당한다.

총사업비 774억원이 투입되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병상은 모두 98개이며 이 가운데 58개는 음압병상으로 운영된다. 음압 수술실도 함께 구축해 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상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에는 병상 운영 체계를 전환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전용 CT실과 검사시설을 비롯해 생물안전등급 3등급(BL3) 연구실,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시설도 들어선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공연예술 협업·유통 네트워크 연결

'KoCACA 아트페스티벌' 열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6 KoCACA아트페스티벌 in 부산'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예술 유통과 협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영화의전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공연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아트마켓형 축제다.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체를 비롯해 공연장 장비업체 관계자 등 430여 개 기관·단체에서 약 2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 슬로건은 'Together in ARTS'다.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콘텐츠를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비롯해 KoCACA 포럼, 문예회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프린지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하며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섬섬여수옥수수' 드론방제로 경쟁력 강화

4.1ha 규모 재배단지 방제 작업

여수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섬섬여수옥수수'의 품질 향상과 친환경 방제 확대를 위해 드론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수시는 화양면 일원 4.1ha 규모의 '섬섬여수 친환경옥수수 작목반' 재배단지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는 옥수수 생육 시기와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지난 22일 1차 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방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드론 방제는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수시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2022년 친환경 옥수수 드론 방제 지원 사업을 도입한 이후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섬섬여수 옥수수'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농업기술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여수 옥수수가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방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화양면민회관 일원에서는 옥수수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김해시, 기후변화 재난 종합대책 추진

9월까지 5대 분야 21개 과제 실시

김해시가 여름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시는 하절기 폭염·집중호우·감염병 등 하절기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9월까지 기후변화 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8개 부서 협업으로 시민 건강관리, 관광휴양지 관리, 재해재난 대비 안전관리 등 5대 분야 2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폭염대책은 관내 무더위 쉼터(실내 434개소, 야외 39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공원·전통시장 쿨링포그 분사 등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

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의 주차·쓰레기 민원에 대해 교통지도 단속반, 쓰레기처리 상황반, 기동수거반을 운영한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구축은 급경사지와 물놀이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농업 분야는 시설하우스와 농작물 재배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응급복구 조치를 병행한다.

저소득층 안전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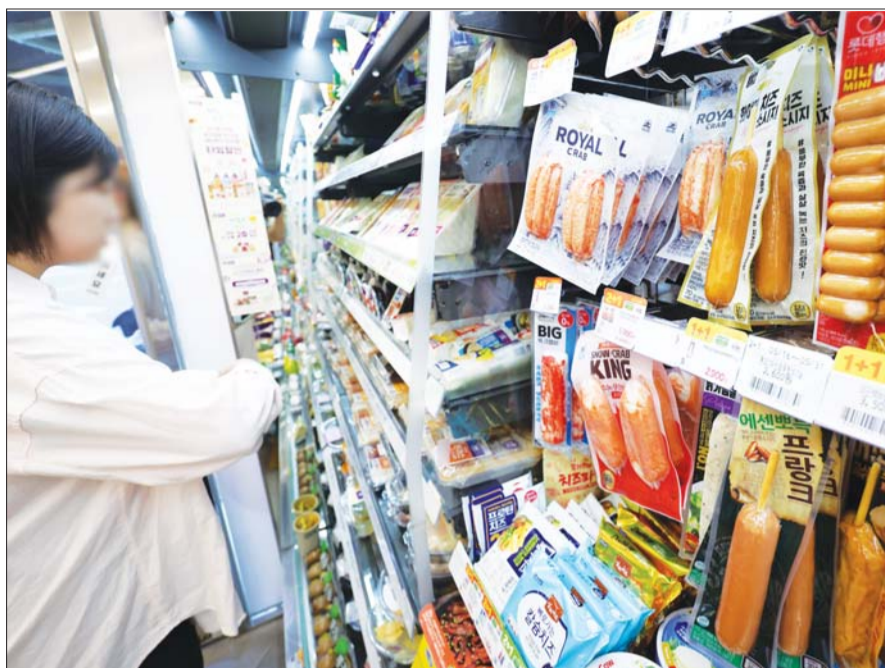
편의점 장보기로 몰린 지원금... 정육·계란·생필품 매출 폭증

사용처 제한에 편의점 소비 집중 GS25, 계란·수입육 매출 급증 세븐일레븐, 문구·화장품 강세 이마트24, PB 생리대 매출 23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편의점이 대표 수혜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대신 사용 가능한 편의점으로 소비자 발길이 집중되면서, 업계 전반에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31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첫 일주일인 18일부터 25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 4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신선식품과 간편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고물가 속에서 정육과 계란 등 1차 축산물의 상승세가 매서웠다. CU와 GS25는 정육과 계란을 중심으로 한 신선식품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CU의 정육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4%



3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소시지와 맛살류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급증했으며 계란(생란) 매출 역시 49.4%로 반등했다. GS25 역시 이 기간 계란 매출이 71.6%에서 72.3%까지 치솟았고, 수입육 매출도 5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특히 최근 정육과 계란 시세가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정육(삼겹살 100g 기준) 평균 가격은 2810원, 계란(특란 30구 기준)은 7532원이었는데 이는 각각 5개년 평균값 대비 정육(2543원)은 10.5%, 계란(6689원)은 12.60% 높은 수준이다. 고물가 속에서 지원금 덕분에 체감 구매력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고기와 계란 등 식재료를 구매해 집밥을 준비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생필품 및 가공품, 생활 밀착형 물품의 매출 증대가 두드러졌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문구류 매출이 83% 증가하고 건강식품이 57% 늘어난 것은 물론, 화장품 매출이 전주 대비 112% 폭증하며 먹거리 외 생필품 영역에서의 소비 확대를 입증했다. 이마트24 또한 가공품과 위생용품 중심으로 재미를 봤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엘로우입는 오버나이트 생리대' 매출이 전월 대비 231%나 뛰었고, 화장품(40%)과 액체세탁제(38%) 등 일상적인 가공·생필품 카테고리에서 확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소비 흐름을 붙잡기 위한 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다. CU는 21일 2400여종의 기존 행사 상품에 라면, 즉석밥, 정육 등 생활 밀착 품목 50여 종을 추가해 할인에 나섰다. 장보기 특화 점포인 '스마트 그로서리'를 선보이며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GS25 역시 신선

강화형 행사를 연내 1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 하에 6월부터 신선식품 및 생필품 중심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필품 특수를 누린 세븐일레븐은 신선식품 18종 대상 할인과 함께 총 2000여 종의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트24는 생필품 50종 30% 할인 및 PB 상품 대상 40% 페이백 행사로 맞불을 놓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유가 지원금 지급에 대해 단기 매출 상승보다 편의점에서 장보기 경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간식이나 음료를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신선식품과 생필품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장보기 채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원금 사용 경험이 향후에도 편의점 이용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선식품과 장보기 상품군 확대, 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쿠팡, 로켓프레시 과일 AI 선별 확대

감귤·참외·수박 등 품목 늘려 당도·수분·내부 상태 정밀 분석 산지 검품·맞춤 포장 체계 강화

쿠팡이 협력사와 손잡고 과일 상품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로 배송되는 제철 과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선별 시스템을 거친 고품질 물량 확보 ▲산지 현장 검품 강화 ▲전용 포장재 개선 등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쿠팡은 최근 주요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감귤과 참외, 수박에 AI 과일 선별기 도입을 확대했다. 'AI 선별 시스템'을 통한 과일 물량을 늘려 새벽배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과일 선별기는



박청규 쿠팡 로켓프레시 품질보증팀 매니저(오른쪽)가 협력사와 함께 AI 과일 선별기 분석 결과를 보고 있다. /쿠팡

비파괴 광학 센서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과일의 당도·수분 함량·내부 상태

등을 정밀 분석하는 기기다.

AI 과일 선별기 품목 확대와 함께 제철 과일의 '산지 현장 검품'도 강화한다. 쿠팡 로켓프레시 품질보증팀과 품질관리팀은 최근 주요 협력사 산지를 매일 방문해, AI 선별 시스템을 통해 걸러낸 최상급 과일을 최종 확인해 물류센터로 출고하고 있다.

과일 전용 맞춤형 포장도 대폭 강화했다. 수박의 경우 상품 전체를 에어캡 등 완충재로 촘촘하게 감싼 뒤 전용 박스에 담은 '2중 보호 포장'을 도입했다. 멜론, 포도, 복숭아, 딸기 등 충격에 취약한 주요 과일 품목에도 강화 포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북미 공략 강화

美 세포라 90여개 매장 헤어타워 설치 8월 400여개 매장 정식 입점 앞뒤

LG생활건강이 북미 화장품 시장에서 고급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 유통을 확대하며 K삼부 경쟁력을 높인다.

LG생활건강은 최근 미국 내 세포라 90여개 핵심 매장에 특별 진열대 '헤어타워'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세포라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으로 미국 전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닥터그루트는 헤어타워를 통해 브랜드 주력 제품인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SRS)' 제품군을 선보인다. 오는 8월 미국 전역 400여개 매장 정식 입점을 앞두고 시장 반응과 판매 데이터를 사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K뷰티 영역을 두피 관리로

확대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샴푸는 물론, 컨디셔너, 세럼 등 8종의 제품을 내놓고 브랜드가 독점적으로 설계한 향, 제형 등을 현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세포라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K뷰티 최신 유행과 제품 효능을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북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 인스타그램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해외 크리에이터와 협업한 콘텐츠를 확산한다.

LG생활건강은 온·오프라인 동시 공략으로 닥터그루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북미 시장에서 닥터그루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롯데百, 8대 수입사 와인 맞붙는다

시그니엘 서울서 본선·테이스팅 화이트·레드 16종 블라인드 심사

롯데백화점이 6월 5일 잠실 시그니엘 서울 76층 그랜드볼룸에서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콘서트 'The V:ind(더 블라인드) 2026'을 개최한다.

이번에 제3회를 맞이하는 '더 블라인드'는 롯데백화점이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영감을 받아 처음 선보인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콘서트다. 우승 와인은 대회 롯데백화점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며 전국적인 완판 행렬을 기록해 왔다.

올해 '더 블라인드 2026'은 국내 5성급 호텔인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본선 콘서트와 테이스팅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국내 최정상급 소믈리에부터 미술링스타 셰프, 유명 와인 셀러까지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해 경연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2025년 제2회 더 블라인드 행사 전경. /롯데백화점

이번 경연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8대 와인 수입사가 총출동해 치열한 경연을 펼친다. 앞서 국내를 대표하는 8대 와인 수입사(금양, 아영, 롯데, 나라셀라, 국순당, 산동와인, 에노테카, 신세계엘앤비)가 총 50종의 주력 와인을 출품했으며, 1차 예선을 통해 화이트와 레드 와인 각 8종씩 총 16종이 본선에 올랐다.

/김서현 기자

유유자조금관리위원회 우유가 되어 보는 국산 우유 체험전

생산부터 식탁까지 여정 소개

국산 우유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문을 열었다. 유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립농업박물관과 협력해 체험형 특별전 'GO, GO! 오늘은 내가 우유'를 개막하고,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안전성, 국내 낙농산업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직접 '우유'가 돼 목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됐다. 목장 사육 환경과 원유 생산 과정, 검사·살균·가공·유통 등 국산 우유의 생산 체계를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녹색소비주간 맞아 혜택 강화

3500여개 친환경 품목 구매 시 추가 적립 저탄소 PB 상품 4종 20% 할인 판매

롯데마트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친환경 소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 녹색소비주간'에 발맞춰, 고객들의 친환경 소비를 독려하고 녹색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행사 기간 중 친환경 인증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액의 5%를 엘포인트(L.POINT)로 추가 적립해준다. 대상은 환경표지·저탄소 등 정부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을 비롯해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 상품 등 3500여개 친환경 품목이다.

올해 저탄소 인증 PB 할인 행사도 연다. 저탄소 제품은 제조·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인 상품으로, 6월 한 달간 롯데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 잠실점 생활용품 매대에서 고객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롯데마트

마트 전 점에서 '오늘좋은 복숭아 아이스티(1.5L)', '오늘좋은 국내산 19구 크리 스피클 미니(130g)' 등 자체 브랜드 '오늘좋은'의 저탄소 제품 총 4종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린카드를 활용한 에코머니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2011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고객들의 친환경 소비 실천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서현 기자

유한양행, '렉라자' 발판 삼아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항암·대사질환·면역 신약상황 공유
글로벌 기술수출 중심 전략 추진
자체 개발 시 신약개발 플랫폼 활용



유한양행 본사 전경.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비소세포페암 치료제 '렉라자' 성공을 바탕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혁신 연구개발을 글로벌 기술수출로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3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최근 본사에서 'R&D 데이'를 개최하고 항암, 대사질환, 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약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임상 1상과 2상을 기술수출 최적기로 설정하는 등 글로벌 상업화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안전성, 효과 등에 대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해 약물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문화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후기 임상 부담 등 신약개발 실패 요소를 분산하는 데 중점

을 둔다. 유한양행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에서 중앙·항암 비중은 50%, 심혈관·신장·대사

30%, 면역·염증 20%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항암제 후보물질 'YH42946', 'YH32367(Nesfrotamig)' 등은 각각 임상 1상과 후기 임상 1상에서 순항하고 있다. 'YH42946'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계열의 항암제로 암 세포 증식과 전이에 관여하는 HER2 및 EGFR 유전자 변이를 표적한다. 'YH32367(Nesfrotamig)'이 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다. 암세포 표면의 HER2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4-1BB 활성을 유도한다. 4-1BB는 항암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면역조절 수용체다. 고통을 적응증으로 한 'YH32364' 역시 임상 1상 용량증량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 면역 영역에서는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가 임상 2상으로 선두에 있다. 최근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 'YH25724'가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올해 환자 모집을 시작해 단독 및

병용 2상까지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파이프라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이프라인별 차별화 전략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특정 유전자 변이 암종은 국내 조건부 허가를 먼저 취득한 뒤 연구자 임상을 거쳐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한다는 복안이다. 전 임상에서 우수한 시그널을 보인 항암제는 빅파마의 기존 제품과 공동 임상을 수행하며 단계적으로 기술수출을 추진한다. 반면 대규모 임상이나 다수의 임상 2상이 급선무인 경우 국내외 펀딩 기반의 뉴코 설립을 통해 임상 규모와 속도를 증강시켜 시장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신약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신약개발 플랫폼 '유-나이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분자 디자인부터 선별, 분석, 합성을 통합 지원하는 이 플랫폼은 현재 유망 후보 물질을 빠른 속도로 도출하

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신약개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R&D 파워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위적 첨단 인프라 구축과 R&D 확대 기조는 유한양행의 견조한 기초 체력이 뒷받침됐다. 유한양행은 올해 1분기 연구개발 비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515억원을 집행했다. 렉라자 마일스톤 등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5268억원, 영업이익은 37.3% 급증한 88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33.5% 늘어난 234억원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실적 기반 위에 차세대 파이프라인과 첨단 R&D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 신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삼바이오피스, 안과질환 치료제 유럽 출시

'오푸비즈' 저농도 제형 직접 출시
개발 넘어 상업화 역량까지 강화



삼바이오피스가 안과질환 치료제 '오푸비즈(Opuviz™)'

삼바이오피스가 안과질환 치료제 '오푸비즈(Opuviz™)' 저농도 제형(40mg/mL)을 유럽에서 직접 판매를 통해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푸비즈는 미국 리제네론(Regeneron)이 개발한 아일리아(Eylea)의 바이오시밀러로,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로서 혈관내피 생성인자(VEGF)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고 있으며, 아일리아의 글로벌 매출 규모는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삼바이오피스는 지난 1월 루센티스(Lucentis) 바이

오시밀러 '바이우비즈(Byooviz™)' 유럽 직접 판매 개시에 이어 오푸비즈까지 시장에 출시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안과질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더불어 삼바이오피스는 2023년 희귀질환 치료제인 솔리리스(Soliris)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Epysqli™)'를 시작으로 유럽 내 직접 판매 제품을 5종으로

확대하며 그동안 축적해 온 상업화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임상·허가에서 상업화까지 사업 수행 범위를 지속 넓혀가고 있다. 삼바이오피스 커머셜부장 린다 최 부사장은 "오푸비즈의 유럽 출시를 통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바이오피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에서 2024년부터 '아필리부(Afilivu)'라는 제품명으로 파트너사인 삼일제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성에피스홀딩스, 중국에 R&D센터 설립

전문 인력 현지 채용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최근 중국 베이징시 창핑구에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100% 출자회사 '삼성생물과기 중국 유한공사' (이하 '삼바이오피스 중국 R&D 센터')를 설립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로 미래 신사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항체-약물 접합체(ADC) 중심 기술 플랫폼 확보와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첫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인 '삼바이오피스 중국 R&D 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R&D 센터가 위치한 창핑구는 바이오 첨단 기술산업단지 중관촌(中關村) 생명과학원이 소재하고 베이징대, 칭화대 등 명문 대학과 인접해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적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삼성바이오피스 중국 R&D 센터는 6월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전문 인력들을 현지에서 채용해 운영하는 현장 특화형 연구개발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중국 R&D 센터 설립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글로벌 진출 행보로서, 최근 ADC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현지의 우수 인력과 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사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비만 신약' 비임상 개발 착수

세계 최초 4개 타깃 동시 작용
내년 상반기 임상 진입 목표
셀트리온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CT-G32'의 영장류 대상 독성시험에 본격 돌입하며 글로벌 임상 진입을 위한 막바지 비임상 개발 단계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이 목표다. CT-G32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을 포함한 4개 타깃에 동시에 작용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셀트리온은 해당 후보물질을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기존 GLP-1 기반 치료제 시장에서 한계로 지목돼 온 환자별 체중 감량 편차, 근손실 및 지속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독성시험에서 쥐 252마리와 원숭이 48마리를 대상으로 CT-G32의 안전성과 독성 프로파일을 평가한다. 해당 시험은 향후 임상시험에서의 적정 투

여 용량 설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단계다. 셀트리온은 독성 평가와 함께 약동학(PK) 및 약리학(PD) 특성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CT-G32는 앞서 진행된 별도 비임상 시험에서 선행 개발 중인 대조 약물 대비 동일 용량 기준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으며, 근육 등 제지방(LBM)을 보존하는 결과도 확보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해당 비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IND 제출을 추진하고, 향후 글로벌 임상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비만뿐 아니라 당뇨, 지방간(MASH) 등 대사질환 영역으로의 적용증 확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일본 스코히아 파마(Schohia Pharma)와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비임상, 임상, 글로벌 상업화를 포함한 개발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미국 시카고 미국임상종양학회에 마련된 '엘레바 테라퓨틱스' 부스 전경. /HLB그룹

HLB그룹, 美학회 참가 핵심 신약 경쟁력 입증

HLB그룹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암 학회인 '2026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6)'에 그룹 내 미국 계열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허가를 앞둔 간암·담관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적 가치를 알리며 글로벌 의료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의 적극 교류했다. 참관객들은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캠렐리주담병용요법'과 담관암 2차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의 임상적 경쟁력을 주목하며, 현재의 심사 상황과 본격적인 상업화 시점, 향후 치료 전략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청하 기자

삼천당제약, 먹는 인슐린 유럽 임상1상 승인

2a상으로 연계 확장 추진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인슐린 후보물질 'SCD0503'의 임상시험(CTA)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임상 1상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전 세계 주요 항당뇨 물질의 초기검증을 도맡아 온 독일의 당뇨 임상 전문기관 '프로필(Profil)'에서 진행된다. 프로필은 노보노디스크의 오젠픽, 위고비를 비롯해 사노피,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당뇨 임상을 다수 수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전문기관이다. 임상을 통해 삼천당제약은 제1형 당뇨 병환자를 대상으로 'SCD0503'의 흡수 특성과 혈당 조절 능력, 안전성을 기존 피하 주사 인슐린과 비교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오리지널 인슐린 제제의 허가 임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국제 표준 시험법인 '정상혈당 클램프(Euglycaemic Clamp)' 조건을 도입해 결과의 신뢰도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구용 인슐린은 장에서 흡수된 뒤 간

을 거쳐 전신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생리적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삼천당제약은 혈중 약물 농도를 보는 약동학(PK) 평가뿐만 아니라, GIR 기반의 약력학(PD) 평가를 병행해 먹는 인슐린의 약효를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임상 설계 역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이중위약(더블 블라인드) 방식의 4개 치료군, 6주간 교차설계로 까다롭게 디자인했다. 이와 함께 삼천당제약은 임상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속도전에도 나선다. 회사는 이번 임상 1상 단계에서 곧바로 '임상 2a상'으로 연계 확장하기 위한 임상 시험평가를 프로필과 함께 추진 중이다. 소규모 환자 대상의 약효 검증(임상 2a상)까지 진행해 상용화 시점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유럽 임상 1상을 통해 경구용 인슐린의 우수한 흡수 특성과 혈당 조절 효능을 입증하는 동시에, 임상 2a상에서의 확장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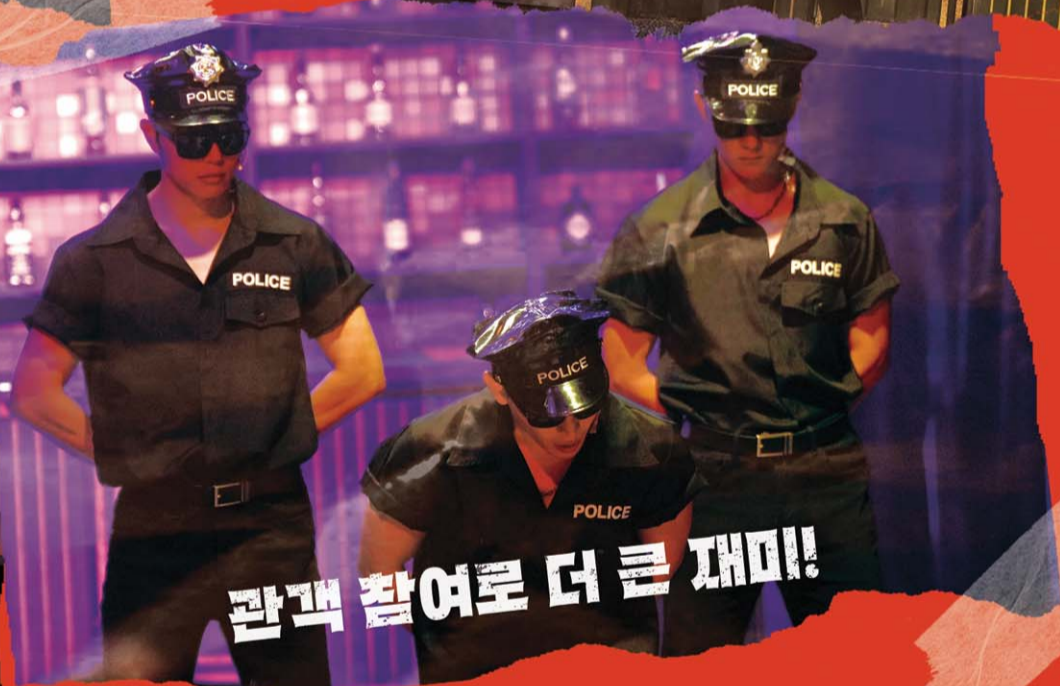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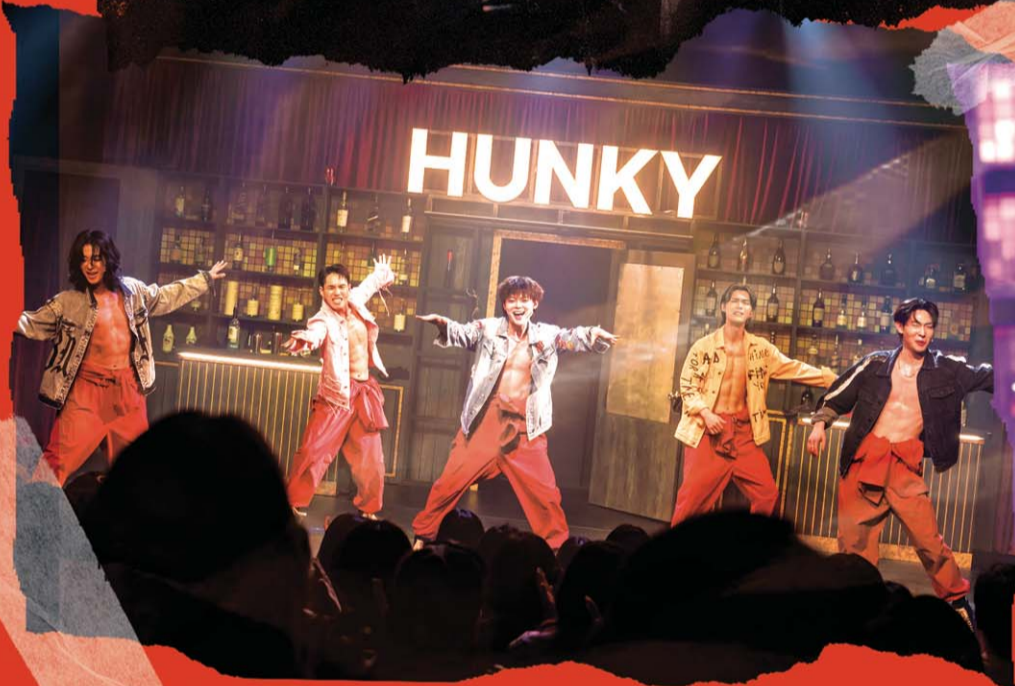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스타스태이지

본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관객 참여로 더 큰 재미!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 NOL 티켓 평점 10점 |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방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물 날 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K-뷰티 R&D 핵심거점 부상



소상공인연합회, 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 회장(왼쪽)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롯데멤버스-경상대, 데이터 전문 인재 키운다
 롯데멤버스는 경상국립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과 데이터 전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롯데멤버스 오경미 DT부문장(왼쪽)과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장 부수현 책임교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멤버스



롯데건설, 건설현장 '찾아가는 미용실' 행사
 롯데건설은 세종시에 위치한 들목고 외곽순환도로 건설현장에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찾아가는 미용실(LO TTE E&C Build-Cut)'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현장에서 안전보건경영회의, 안전점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미용 봉사에 참여했다. /롯데건설



삼성웰스토리, 임직원 가족 초청... 370명 화합
 삼성웰스토리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100여명 등 가족 37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한켠 숲 트레킹, 체험 버스, 명상·요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삼성웰스토리



BGF리테일, 몽골서 사막화방지 조림 활동
 BGF리테일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등과 함께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 조림 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5월 26일부터 사흘간 몽골 바양척트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최한 '2026 몽골 기후대응 숲 식재행사'에 참여해 비술나무 100여 그루 식재에 동참했다. /BGF리테일

인사 ◆한국마사회 ◇임용 ▲부회장 겸 고객서비스본부장 이병우 ▲미래전략본부장 배광석

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인사 방문 "새로운 뷰티시대 위해 힘 모아야"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한국콜마가 연구개발(R&D) 중심의 K뷰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전격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 인공지능을 접목한 뷰티 테크 등을 직접 살펴보고 K뷰티 R&D의 새로운 표준을 확인했다. 한국콜마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피부진단 기기인 '카이움'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은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합해 다루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 연구소로, 7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국내 세종공장과 부천 공장부터 중국,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지난 28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뒷줄 왼쪽 다섯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콜마그룹

콜마 생산기지까지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탄생시키는 R&D의 총본산이다. 그 결과, 올해 초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콜마는 '스카 뷰티 디바이스'를 공개해 뷰티 기업 최초의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세계 최초 윈스톱 통합 디바이스'로,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을 한 기기로 해결해 준다.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역량이 집약됐다. 또 CES 2026 디

지탈헬스 부문 혁신상까지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서 K뷰티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현장에서는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를 비롯해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해 민·관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K뷰티가 화장품 제조를 넘어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짚으며 "대

한국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뷰티 시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K뷰티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스타 브랜드들이 꾸준히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고도화된 환경이 필수"라며 "한국콜마가 R&D 리더로서 산업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이끈다"고 약속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방산업체, 호국보훈의 달 맞아 사회공헌... "헌신하신 분들 예우"

HD현대 정기선 회장 현충원 참배 한화그룹 묘역 돌보기 등 봉사활동

국내 방산업체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원을 잇따라 방문하며 합동 참배와 헌화 봉사 등을 통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추모했다. 이번 추모 활동에는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기 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한 뒤 HD현대의 자매기업인 25구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비석을 닦는 등 정화 활동을 펼쳤다. 정기 회장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지난달 29일 임직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있다. /HD현대



한화그룹 충청지역봉사단이 지난달 28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 /한화그룹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HD현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8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한화글로벌부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등

한화그룹의 충청지역 사업장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충탑과 천안함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장병 제3묘역의 비석 정비, 태극기 꽃기 등을 진행했다.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은 지난 2013년 국립대전현충원과 '묘역 돌보기'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14년째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있다. 봉사단은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성금 기탁, 문화·예술 공연 초청, 군장병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호국보훈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한화그룹의 창업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실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풀무원, 하반기 펫푸드 사업 드라이브

'아미오' 라인업 정비... 신제품 출시 풀무원이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의 제품 라인업 재정비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반려동물 사업 확대에 나선다. 31일 풀무원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초 총괄 CEO 직속으로 '미래사업부문 신성장 SBU(Strategic Business Unit)'를 신설하고 펫푸드 사업을 핵심 육성 분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의 제품군을 정비하고 신규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풀무원아미오는 국내 펫푸드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사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 방침이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한혈센터(KU 아임도그너 한혈센터)와 반려견 한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향후 3년간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건국대학교가 개최한 '한혈 영웅의 날' 행사에서는 한혈센터 후원 공로를 인정받아 이우봉 총괄 CEO가 감사패를 받았다. 풀무원은 앞으로도 한혈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국제약,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전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앞장 동국제약이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건강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지난 23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30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레드불이 주최하는 글로벌 리그 오브 레드(LoL) 이벤트 매치 레드불 리그 오브 잇츠 오운(Red Bull League of Its Own) 스페인 현지 직관 투어런을

이날 행사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함께 해 산행 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탐방객에게 배포했다. 또 등산, 달리기, 배드민턴 활동 후 신체 회복에 대해 설명하는 책자, 무릎 통증 관리법을 알리는 배너 등을 설치하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더벤티 "LoL 경기 직관하세요"

더벤티는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레드불이 주최하는 글로벌 리그 오브 레드(LoL) 이벤트 매치 레드불 리그 오브 잇츠 오운(Red Bull League of Its Own) 스페인 현지 직관 투어런을

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레드불 협업 메뉴와 함께 구성된 'LoL 굿즈 세트'를 구매한 고객 가운데 구매 수량 상위 10명에게 스페인 현지 직관 투어런을 제공한다. 투어런에는 경기 관람 티켓과 양복 항공권, 3박 숙박권이 포함된다. /신원선 기자

AMERICCI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손해 우려 시 회생채권 신고 미루지 말아야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종종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호하게 “그렇다”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춰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공사 하자 문제다.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해 인도했다면, 그 후 회생절차개시 이후

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더라도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불이행의 원인, 즉 불완전한 이행 자체가 이미 회생절차개시 전에 완성돼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 법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신고 해태의 결과가 가혹하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지면, 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회생절차 참가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채권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의 발생 원인과 예상 금액을 기재해 미확정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는 통

상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 확정 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고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또 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손해 발생의 원인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건설·제조 분야의 하자담보책임, 장기 계속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손해의 현실화 시점과 원인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채권자가 방심하기 쉽다. 이러한 유형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일수록 거래 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접하는 즉시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아직 손해가 없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는 판단은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채권 발생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다면, 그 열매가 맺히기 전이라도 권리를 지켜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건을 위한 절차인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권리 행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무대 위 정쟁, 무대 뒤 교육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는 어느 날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한다. 하늘에서 조영 장비가 떨어지고, 라디오에서는 자신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그제야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거대한 세트장이었다는 사실을.

흥미로운 것은 트루먼이 속았다는 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트장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점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저 구경거리로 소비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요즘, 문득 그 영화가 떠오른다. 어쩌면 지금 교육감 선거도 비슷

한 모습인지 모른다.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단일화와 진영 대결이다. 정작 교육은 무대 뒤에 있는데 우리는 무대 위 장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기초학력 지원,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교육, 교원 지원, 학생 복지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수많은 정책이 교육청을 통해 집행된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이상할 만큼 관심 밖에 있다.

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유권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후보들 역시 책임이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작 학교 안의 문제는 뒤로 밀리고, 단일화와 진영 대결, 후보 간 공방이 전면에 놓였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일화 섀범이나 진영 구도에 가려진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감 선거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매일 마주하는 학교의 모습을 바꾸는 자리다. 학생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는 교육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에서 트루먼은 세트장 끝에 놓인 문을 연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가 열어야 할 문도 다르지 않다. 단일화와 진영 대결의 장면을 지나, 누가 학교와 교실, 학생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번 선거만큼 “누가 교육을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치의 소음에 가려진 교육의 목소리를 찾는 일은 결국 투표장에서 시작된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일 (음 4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60년생 인생사 욕심낸들 무슨 큰 소용인가. 72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것이 흠입니다. 84년생 지금 당장은 귀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49년생 스스로를 조용히 위로하세요. 61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 옵니다. 73년생 검소의 미덕이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85년생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은 금물입니다.



50년생 주위와 함께 협동하세요. 62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74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6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51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입니다. 63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75년생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습니다. 87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습니다.



52년생 자식중에 효자가 나왔구나. 64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생깁니다. 76년생 조금만 더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었을 겁니다. 88년생 자존심에 얽매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3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5년생 상대도 나만큼 알고 있습니다. 77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89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54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하겠습니다. 66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78년생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0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55년생 앞뒤를 잘 가려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67년생 소송은 매우 불길합니다. 79년생 주위 상황을 세심히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91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6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68년생 서쪽이 길방입니다. 80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산야에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습니다.



5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69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81년생 옛 사람의 자문을 받아 차분히 실행하세요. 93년생 이미 발전일로 들어섰습니다.



58년생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0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82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4년생 특이한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71년생 흑백을 가리키는 힘듭니다. 83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세요. 95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김상회의四季 기후 재난

한낮의 햇살이 지나치게 강하고 잠깐만 밖에서 있어도 피부가 따가웠다. 꽃구경의 설렘이 채 가시며 낮 기온이 벌써 한여름처럼 치솟았다. 이른 더위에 외출하는 게 꺼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친다. 더위에 지치니 해가 갈수록 더위가 빨라진다는 느낌은 이제는 기분 탓이라고 하기 어려워졌다. 반소매 차림으로 부채질하며 지친 표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후 재난이 눈앞에 닥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 재난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일상을 위협할 만큼 가까워졌다. 기후 재난이 몰고 온 더위는 단순히 사람이 불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노약자나 야외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기습적인 가뭄은 농작물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식비를 오르게 만든다. 무엇보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이 쌓아온 문명의 시스템 자체가 버티기 힘든 환경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후 재난은 조후가 깨진 상황이다. 조후는 명리학에서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계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사주에서 오행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자연도 균형이 깨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돌출한다. 해가 갈수록 더위가 빨리 오는 현재 상황은 화의 기운이 과도한 것으로 본다. 특정한 기운이 강해진 자연은 작은 변수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제이다. 소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막아서 자연이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자연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에너지가 강해지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생긴다. 삶을 함께 만드는 기후 재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법은 작은 실천에 있다. 자연의 조후는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자연이 균형을 되찾아야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3	5	6	1	8
5			1		2	9	
2			6				
			7			5	6
9						4	
5	6		4				
			8				2
	4	9		5			7
7	8	5	1	2			4

8		4		9	1		6	2
7						5		
	5	8				4		1
5				6				
2			8	9				5
				4				8
1		9				3	8	
		7						9
3	6		9	2		1		4

9	6	8	2	1	9	8	2	
1	8	9	9	6	7	2		
9	2	1	6	2	8	9	7	
2	8	1	6	7	8	9	9	
8	7	9	2	1	6	8		
9	9	8	2	7	6	2	1	8
6	8	7	9	8	2	1	2	1
2	6	9	2	8	1	9	8	9
8	1	9	9	8	2	7	2	6

7	1	8	2	6	9	9	8	
6	9	2	8	1	9	2	8	7
9	8	2	1	9	7	6	2	1
8	1	6	9	7	8	2	1	9
9	7	9	6	1	8	8	1	2
2	8	8	7	9	2	1	6	9
1	2	7	9	8	2	8	9	6
6	6	9	2	8	1	9	7	2
2	9	2	1	6	9	7	8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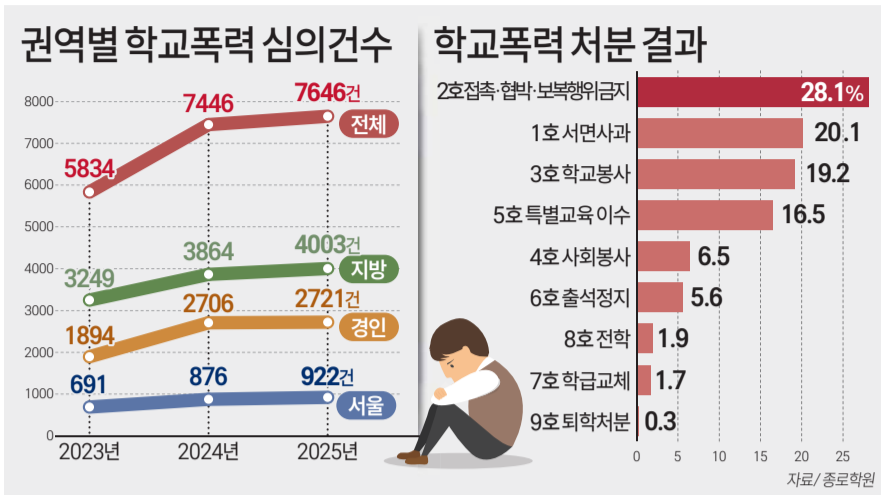
학교폭력 한번이면 입시 타격... 심의 건수 3년 연속 증가

지난해 고교 심의 건수 7646건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세 전환 언어폭력 32.5%로 가장 많아 일부 대학, 서면사과도 불이익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강화되면서 피해 학생 측의 심의 요청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 2025년 7646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은 3.6%, 경인은 0.6% 각각 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112.5% 증가했고 국제고는 116.7% 늘었다. 외국어고는 8.3%, 지역단위 자사고는 7.7%, 일반고는 3.4% 각각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 25.6%, 사이버폭력 13.4%, 성폭력 9.5%,

따돌림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요와 따돌림은 증가폭이 컸다. 강요는 전년 대비 29.2%, 따돌림은 26.3% 증가했다. 단순 신체 접촉이나 폭행뿐 아니라 관계 배제, 심리적 압박,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 등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으로 적극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2023년 1만1258건, 2024년 1만2975건, 2025년 1만2628건

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학교폭력 대책심의회 심의 건수에는 복수의 피해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처분 건수는 심의 건수를 웃돈다.

처분 결과를 보면 2호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0.1%, 3호 학교봉사 19.2%,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 4호 사회봉사 6.5% 순이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은 4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가 늘고 있지만 중대한 폭력 사건보다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갈등 사안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감점 또는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는 학생부 평가 비중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

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지역균형전형과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연세대는 수시 추천전형과 체육인재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논술전형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5점에서 최대 50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수시 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논술전형과 정시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향후 학생부 평가 강화까지 예정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학업과 진학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K-의료·뷰티 효과... 외국인 소비 1조 돌파

서울시, 4월 외래 관광객 156만명 웰니스 등 소비 늘고 지역도 다변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뷰티·미식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 회복과 대만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지역도 강남권을 넘어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1조153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0.5%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 소비 비중은 쇼핑업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웰니스업 24.8%, 식음료업 13.1%, 숙박업 11.0% 순으로 집계됐다.

자차구별 소비 비중은 강남구가 29.1%로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모습. /서울시

가장 높았으며 중구 27.5%, 마포구 7.4%, 서초구 6.5%, 종로구 5.5%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명동·동대문 등 전통 관광상권과 압구정·청담·코엑스 등 강남권 소비 지역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관광 소비트렌드 분석 결과 명동은 쇼핑·의료, 강남역·신논현역

은 의료, 잠실역은 쇼핑, 삼성역은 숙박 중심 소비가 두드러졌다.

방문객 국적도 크게 증가했다. 4월 기준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44만 명, 일본 23만 명, 대만 15만 명, 미국 13만 명, 필리핀 6만 명 순이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중국 153만 명, 일본 96만 명, 대만 56만 명, 미국 37만 명, 필리핀 18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34.4% 증가했으며, 중국 관광객도 2019년 대비 4월 기준 112.6%, 1~4월 누적 기준 105.8% 수준으로 회복했다.

관광 행태에서는 근거리 국가 방문객과 장거리 국가 방문객 간 차이도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평균 3.5일 체류하며 재방문율이 71.2%에 달한 반면, 유럽인 관광객은 평균 7.5일 머물렀지만 재방문율은 26.3%로 조사됐다.

/이현진 기자

“양자 AI 분야 일자리 84만개 창출 전망”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 리포트 발간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이 산업과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9일 GJF고용이슈리포트 ‘양자인공지능 시대의 경기도 일자리 정책 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컴퓨팅과 AI의 결합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 의료,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활용이 확대되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AI 산업 성장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AI 윤리,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고부가가치 전문직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과 정부의 양자산업 육성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산업 생태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양자기술 확산은 고용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양자 알고리즘 설계와 데이터 활용, 시스템 운영 등 고숙련 직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수원시, 실리콘밸리와 첨단산업 유치 협력

KSEA·플러그앤플레이와 협약

수원특례시가 미국 실리콘밸리 기관·기업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제2회 광고 양자 바이오 서밋과 연계해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KSEA SVC)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등 미래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리콘밸리 기반 글로벌 혁신 액셀러레이터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본사와 ‘첨단산업 혁신기업 발

굴·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실리콘밸리 혁신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원순호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박군호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 지문위원, 플러그앤플레이 벤자민 브랜드(Benjamin Brand) 기업 파트너십 총괄, 신성우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2024년 1월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와 한미



박군호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 지문위원(오른쪽부터), 김현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 플러그앤플레이 벤자민 브랜드 기업 파트너십 총괄이 협약 체결 후 함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과학기술 연구자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3 | 해질 / 19:47

6월 1일 (월)
음력 : 4월 16일

수도권 날씨
18 ~ 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28, 동두천 16/29, 가평 15/29, 파주 16/28, 서울 18/29, 양평 17/29, 인천 17/28, 수원 18/29, 용인 18/29, 평택 17/30

·지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종전합의서 서명 안한 트럼프... 美, 이란에 수 정안 발송
▲ 이란 IRGC해군 “호르무즈 통제권 간섭하면 美 군사 보복” /사진 뉴시스

▲ 러 원전 기업 로사톰 “우크라이나 무기, 자포리자 또 타격”
▲ 日 넷케이 “중양정부 잔업수당 미지급에 관리 자급 연봉 !”

▲ 세계은행, AI·디지털 인재 한국서 직접 채용... 7월 방한
▲ 페라리 경영진, 교황 레오 14세에 스티어링 휠 선물



편의점으로 몰린
고유가 지원금
생필품 매출 폭증
L1



Life

유한양행
'렉라자' 발판
차세대 신약 강화
L2



“집 연결하는 스마트홈… 현장 변수 잡는 ‘노하우’가 경쟁력”



새벽을 여는 사람들

넥스홈네트워크 유성훈 대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내 집’에 대한 욕구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누리던 편의 기능을 단독주택에서도 구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홈사물인터넷(IoT)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마켓리서치리뷰는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 2030년 133억8000만달러(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15%다.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크게 가전 중심의 플랫폼 사업자와 주거 설비 중심의 홈네트워크 사업자로 구분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와 LG전자의 ‘씽큐’가 가전과 각종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코맥스·코콤·경동원 등은 월패드와 비디오폰, 도어락, 난방 설비 등을 연동하는 홈네트워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도 인터넷 망을 활용해 일부 스마트홈 시장에 진입해왔다.

유성훈 넥스홈네트워크 대표는 “대기업들이 자체 가전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디오폰과 도어락 등까지 주거 공간 전반에 걸친 시공은 여전히 전문 업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관 밖부터 거실·주방·침실까지 한번에 제어

사물인터넷(IoT)이란 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기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작동하는 기술이다. 홈 IoT는 전기, 보일러, 에어컨, 비디오폰 등을 하나의 플랫폼(앱)에 연동해 제어한다. 외부에서도 조명과 냉난방, 환기 청정기를 조절하고 인덕션 후드와 가스 밸브까지 원격으로 관리한다. 현관 밖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도어락에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해 외부에서도 방문객을 응대할 수 있다.

거주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배선과 통신망이 집 안 곳곳을 연결하며 완성된다. 조명 스위치 뒤로는 제어선이 지나가고, 천장 속에는 환기장치와 냉난방 설비를 연결하는 배선이 촘촘히 깔린다. 현관의 비디오폰과 도어락, 거실의 월패드는 서로 다른 설비들과 통신하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으로 기능을 이용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수많은 설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정교한 시공 과정이 숨어 있다.

문제는 각 설비가 모두 같은 제조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에어컨과 환기장치, 조명, 도어락이 서로 다른 업체의 제품인 경우가 많아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려면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유성훈 대표는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난 25일 서울 노원구에서 만난 유성훈 넥스홈네트워크 대표.

/조민선기자

단독주택 편의성 높이는 홈 IoT 확산 2030년 스마트홈 시장규모 18조 전망

대기업 가전 플랫폼-홈네트워크 연결 보이지 않는 정교한 배선으로 완성 단독주택 스마트홈, 시공 경력 필요 현장구조·설비 달라 응용능력 중요

아파트 벗어나 프리미엄 단독주택 공략 독보적 기술력에 일본 건설사도 관심

일은 아니지만 현장마다 구조와 설비가 달라 응용 능력이 중요하다”며 “단독주택 스마트홈의 경쟁력은 결국 시공 경험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건축주·고객 신뢰가 우선…기반은 현장 노하우

스마트홈 시공은 크게 4단계로 분류한다. 주택을 짓기 전 건축주·건설사와 고객이 원하는 스펙에 따라 시공 가능 여부를 논의한다. 이후 전기·난방 업체에 전선관을 배치하는 배선 작업을 설명하고, 관 내부에 전선을 통과시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시공을 시작한다. 이후 인터넷 설치가 완료 되면 앱을 개통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까지가 유 대표의 일이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처음과 끝이다. 건축

주·건설사와 고객과의 신뢰가 업무의 기반이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탄탄한 실력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16년부터 아파트 홈 네트워크부터 빌라,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유형의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주거설비에너지 연동이 강점인 경동나비엔 자회사 경동원에서는 시공 전문가로 5년간 일했다.

◆일본서도 찾아와…프리미엄 단독주택 시장 공략

유성훈 대표가 주목한 시장은 단독주택과 고급 빌라다. 유 대표는 이 시장을 블루 오션으로 봤다.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주거 설비를 중심으로 한 비디오폰-월패드-도어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삼성SDS는 홈IoT 사업부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매각했다.

또 다양한 제품의 배선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현장 환경에 맞게 연동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는 “아파트는 설계와 시공 기준이 표준화 돼 있지만 단독주택은 구조와 설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실은 포천에 있다. 수도권 외곽에서 거제도까지 전국 프리미엄 단독주택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최근 일본 단독주택 건설회사 임원진들이 스마트홈 시공 사례를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례를 소개했다.

유 대표는 “전원주택에 월패드와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한 모습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며 “일본에도 파나소닉 등 관련 대기업이 있지만 국내 기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연매출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선배님들 중 한 분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해 많게는 수백억대 매출을 낸다”고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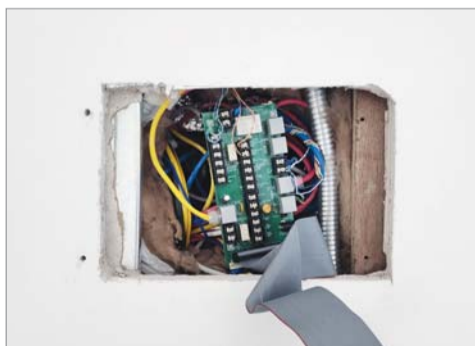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유성훈 대표가 직접 홈 네트워크 시공에 참여한 강원도 홍천 소재의 프리미엄 단독주택.



월패드 속 각각의 장치와 연결된 수많은 배선에는 유성훈 대표의 현장 노하우가 담겨있다.



완성된 홈 IoT 시공 모습. 하나의 월패드로 작동할 수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 3루타 포함 멀티히트로 7경기 연속 안타…타율 0.287
▲‘기록의 사나이’ 삼성 최형우, KBO 최초 통산 1000장타 달성 /사진 뉴스시스

▲첼리스트 김태연, 3대 경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서 준우승
▲MLB서 경기 전 장난 섞인 신경전으로 선수 3명 퇴장

▲K-뮤지컬 국제마켓, 내달 29일 코엑스서 개막…아시아 뮤지컬 허브 도약
▲연극 ‘향수의 뒷’ 오는 10일 개막…배우 유지태 총괄 프로듀서로